



공존을 위한 공감교육

[목 차]

006p	프롤로그 -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공존을 위한 공감교육〉 교재 구성 개요
008p	1장. 초(超)사회성, 인류 문명을 이끌다.
014p	2장. 인지혁명과 성찰하는 자의식
022p	3장. 수렵·채집 시대의 저주
030p	4장. 우리는 왜 함께 있어도 싸우지 않을까?
040p	5장. 공감하는 존재, 인간
048p	6장.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
056p	7장. 뇌는 어떻게 본성을 다스릴까?
062p	8장. 혐오와 편견을 이기는 생각 기술
070p	9장. 기술과 문명의 공진화
077p	10장. 헌법적 공동체
083p	11장. 소농사회와 대한민국 헌법정신
094p	12장. 21세기 평화를 위한 인재상
	- 부 록 -
103p	〈공존을 위한 공감교육〉 배경 설명문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출현하였습니다. 당시 지구는 지금과 달리 매우 추웠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큰 몸집의 짐승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몸에 털이 많지 않아 추위에 약했던 호모 사피엔스는 수많은 위기를 딛고 살아남아 약 1만 년 전 무렵에는 지구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대단한' 성취를 이뤄 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긴밀히 도와가면서 불확실한 외부의 환경과 맞서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뇌·인지능력의 발달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아가 복잡한 상황과 조건들에 대해 판단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호모 사피엔스들의 생물학적 능력과 생존 지식, 경험들은 수만 년에 걸쳐 축적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인류의 목표는 더 이상 생존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다른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의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의사소통 수단이 다양해지고 속도 또한 빨라지면서 잘못된 정보나 지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서로 혐오하고 싸움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인류와 지구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 지속 가능한 세상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침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공존을 위한 공감교육》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재는 우리 인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였고 오늘날 왜 이러한 능력과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는지,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왜'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지, '왜' 차별과 혐오보다 공감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교재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4장에서는 인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왜 우리에게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8장에서는 우리의 뇌와 인지 구조의 특성을 토대로 형성된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끝으로 9장~12장에서는 '공존과 지속'을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해야 하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관점과 태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 전반에 대한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배경 설명문>을 부록으로 함께 담았습니다.

교재의 일부 용어나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절반을 온 셈입니다. 《공존을 위한 공감교육》를 통해 앞으로 남은 절반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존을 위한 공감교육》 교재 구성 개요

교재는 총 12개 장(챕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장은 도입-전개-마무리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세부 항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 • 읽을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장별 주제와 관련된 지식, 태도, 행동 지향점을 담고 있습니다. • 각 장별 주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습니다.
전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안내 • 본문1 • 더 읽어 보기 &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 제시한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각 장별 주제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 본문1과 관련된 각종 사례들을 토대로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전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2 • 더 읽어 보기 &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장별 주제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 본문2와 관련된 각종 사례들을 토대로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작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개1과 전개2에서 다룬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 적용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다룹니다.

초(超)사회성, 인류 문명을 이끌다

-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 힘

[학습 목표]

- 사람 여럿이 함께 생활할 때 협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 사회 속에서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을 돌보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다.

유한양행 설립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유일한 박사는 우리나라가 서양 열강과 일제의 침략 야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1895년에 태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조국과 민족에 보탬이 되기 바랐던 그의 부모님은 유일한 박사가 10살이었던 1904년 그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가난과 인종차별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학업하여 대학교에 입학했고, 1919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기까지 했습니다.

1926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다가 제약회사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제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는 유일한



유일한 박사 동상

CC3.0 image by Singgre, 위키백과
<https://bit.ly/3pNz4Gc>

박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모두 극복하고 이 땅에서 손꼽히는 제약회사를 길러냈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박사를 비롯하여 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끈질길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나라의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개인과 가족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고 바르게 살면 다른 사람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친구들을 정직하게 대하면 모두들 마음을 열고 다가와 줄 거예요.”라는 말에는 그의 신념과 생각이 잘 담겨 있습니다.

유일한은 기업을 경영할 때 세금을 단 1원도 잘못된 것이 없도록 꼬박꼬박 잘 내고, 회사도 직원 모두의 회사이자 이 사회, 이 나라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딸에게 자기가 세운 학교의 땅을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꾸며 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일한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바치겠다고 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신문에도 이 소식이 크게 실렸습니다. 어렵게 번 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던 유일한! 나라와 주위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던 그의 생각과 나눔의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생각거리를 던져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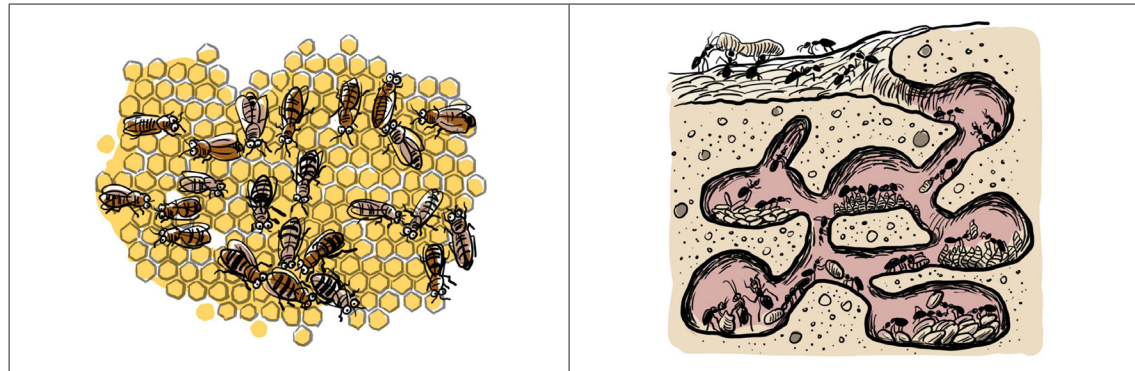
[단원 학습 안내]

이 장에서는 주변에서 자신과 가족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평화롭게 살아가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01 / 집단에 헌신하는 곤충

지금까지 알려진 곤충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100만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개미와 벌 등은 크게 무리를 짓지요. 그리고 마치 전체가 하나의 몸인 것처럼 집단을 이루어 힘을 합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을 '사회성 곤충'이라 부르곤 해요. 사회성 곤충은 전체 곤충의 종류 가운데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성 곤충은 지구상의 곤충 전체 무게에 4분의 3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곤충의 네 마리 가운데 세 마리는 사회성 곤충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사회성 곤충이 이토록 널리 지구에 퍼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 여럿이 뭉쳐서 사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가 자신보다 집단 전체를 위해 살아간다고 해요. 이들의 적수 중에 자기만 챙기려는 자들은 이런 강력한 집단에 상대가 안 되겠지요. 사회성 곤충들이 집단 속에서 충실히 자기 역할을 다하려는 특성을 '진사회성(eusociality)'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협력하는 곤충들의 모습-꿀벌과 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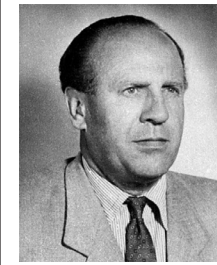
Designed by 조진호

진사회성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진사회성을 갖춘 생명은 등지를 짓고 함께 살아갑니다. 나아가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니더라도 기꺼이 보살피며 함께 키우는데요, 알만 낳는 여왕 개미, 일만 하는 일개미, 무리를 지키는 병정개미 식으로 각자의 역할이 제각각 나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위기에 닥치면 기꺼이 목숨을 던져 집단 전체를 지키려 하지요.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과감히 적을 공격하는 용기는 어디서 생겨날까요? 사회성 곤충은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사회성을 갖춘 존재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우리 안에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도 있으나, 남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배려하고 협력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진사회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1 오스카 윈들러를 다룬 영화 「윈들러 리스트」

★ 영화 「윈들러 리스트」를 감상한 후, 그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오스카 윈들러
CCO image, 위키백과

이 영화는 유대인 대학살이 자행되던 제2차 세계대전 중,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인 사업가였던 오스카 윈들러(리암 니슨 분)는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크리쿠프 강제 수용소에서 마구 죽이는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원래는 욕망과 탐욕에 휘둘리며 살았던 윈들러이지만,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살육 장면을 보면서 인간적인 분노를 느끼며 서서히 변화해 갑니다.

그는 이익만 좇는 악랄한 사업가에서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자신의 공장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정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도 했으나, 1945년 독일이 항복 선언을 하기 전까지 무려 1천 1백명의 유대인 종업원들을 살려 냈습니다.

나중에 살아남은 유대인 종업원들은 윈들러에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다.”라는 탈무드 격언이 새겨진 반지를 선물했다고 해요.

우리는 그의 고귀한 인간 사랑의 실천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살렸던 윈들러의 삶을 영화 속에서 살펴보며 느낀 점을 친구와 나누어 봅시다.

★ 생각 더하기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나 집단 또는 사회를 위해 협력하거나 양보하는 자세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2 / 협력과 평화의 길

개미나 벌과 같은 진사회성 곤충들만 무리 안에서 맡은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힘을 합쳐 살아가는 생명체는 아닙니다.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원숭이, 침팬지, 코끼리 등도 외부의 적이 나타났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 등의 상황에서 서로 돕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가요? 소방관, 경찰관, 군인들은 나라와 사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일상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도움을 주려는 행동을 합니다.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별로 가깝지 않은 다른 이들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며 손해를 무릅쓰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의 감정을 파악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을지 판단한 다음, 적절한 '도움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을 맡는 진사회성 곤충들과 다른 특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대상이 처한 상황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행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요. 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초사회성(supersociality)'이라 부릅니다. 초사회성은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협력하며 평화를 가꾸려고 하는 노력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작업 1 친구를 소중히 여겨요¹⁾

★ 게임 규칙을 살펴 봅시다.

- 개인 소품 1가지를 선정해서 네임펜으로 자기 이름을 쓴 후, 에코백(또는 상자)에 넣습니다.
- 다 넣었다면 돌아가면서 자신의 물건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씩 뽑아 봅니다.
- 물건의 주인에게 다가가서 왜 이 물건을 넣었는지 물어보며 짝을 이루어 보세요.
- 두 명씩 짝을 지어 마주 보고 앉습니다.
- 다리를 넓히고 손을 맞잡은 채로 스트레칭을 하세요.
- 친구와 등을 맞대고 앉아서 팔을 엇갈려 잡은 채 일어서 봅시다.

1. 스트레칭 중에 장난을 치면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세요.
2. '서로 마주보고, 등을 맞대어 앉아 보고, 손을 맞잡아 보는 활동'을 하면서 친구를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 봅시다.

1) <꿈지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2020),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초등용 매뉴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조.

지식작업 2 나는 생활 속 평화 이꿈이!

1. 자기 주변에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 상황'을 찾아봅시다.
2. 친구들과 갈등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해 봅시다.
3. 아래 표 양식을 활용하여 바탕으로 '생활 속 평화 이꿈이' 활동을 해봅시다

원만하지 못한 갈등 상황	[예시] 친구들끼리 언어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
갈등의 원인	[예시] 1)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기 때문이다. 2) 장난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화 가꾸기를 위해 내가 노력할 점	[예시] 1) 내가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 힘들었던 점을 떠올린다. 2)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글을 쓴다.
평화 가꾸기를 위해 나와 친구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예시] 1) 언어폭력을 멈추기 위한 내용으로 포스터를 작성해서 교실이나 학교에 게시한다. 2) 언어폭력예방 단편 영화를 제작해서 홍보한다.
구체적인 방법	< 학교 내 홍보용 포스터 작성하기 > 1. 포스터에 들어갈 글과 그림 구상하기 2. 문구 작성, 글, 채색 등 역할분담하기 3.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함께 작업하기 4. 홍보용 포스터를 그림 파일로 만들기 5. 학교 내 홍보용 포스터를 게시하기 6. 학생 자치회와 연계하여 캠페인하기

<참고자료>

꿈지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2020),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초등용 매뉴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청소년교육전략21(202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법교육 프로그램 '로티즌(Law-citizen)' 강사 매뉴얼, 법무부.

서석영(2014), 유일한의 나눔, 한국톨스토이.

서태호(2020), [서태호의 영화로 보는 삶] 삶과 죽음의 극한리스트, 한국경제, 2020.4.7.

장대익(2017), 울트라소셜, 휴머니스트

정창현, 안광복 등(2004), Who am I? 나는 내가 만든다, 사계절.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2013), 지구의 정복자, 이한음 옮김, 사이언스북스.

인지혁명과 성찰하는 자의식

- 빅 히스토리로 살펴 본 인간 정신의 뿌리

[학습 목표]

- 빅 히스토리 관점에서 인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자아성찰 능력을 통해 자의식이 무엇인지 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말재주가 좋고 피가 많은 고양이 체셔 캣이 등장합니다. 이상한 나라에서 앨리스가 길을 잃고 갈림길 앞에 멈추어 섰을때 나무 위에 있던 체셔 캣을 발견하고, 체셔 캣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어디에 가는데?" 체셔 캣이 앨리스에게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어디로 가는 지 몰라"라고 대답했고 체셔 캣은 그런 앨리스에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월트디즈니 '이상한나라의 앨리스(1951)' 예고편 중 일부

CC0 image, 위키미디어 커먼스

지금까지 역사 연구는 인간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사건과 현상을 살펴보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구와 우주의 역사까지 확대시킨 것이 빅 히스토리(Big History)입니다. 빅뱅(Big Bang)부터 시작한 우주의 역사를 하루라고 했을 때, 인간이 지구에 등장해서 활동했던 시기는 1초에도 못 미치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24시간 중에서 23시간 59분 59초를 생략한 채, 나머지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놓고서 '역사'라는 이름을 붙여온 것입니다.

빅 히스토리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넓고 깊은 시각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인류의 삶이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단원 학습 안내]

이 단원에서는 빅 히스토리로 살펴 본 인간 정신의 뿌리를 알아보고, 우리의 자아와 자의식 성찰을 위한 방법을 탐색해 봅니다.

01 빅 히스토리(Big History), 인류는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는 99.4%가 똑같습니다. 유전자로만 보면 오랑우탄과 침팬지보다, 인간과 침팬지가 더 가깝습니다. 유전적으로 침팬지나 고릴라와 인간이 99%정도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뇌는 이들에 비해 크고 뛰어난데요, 그것은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유인원의 뇌보다 천천히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뇌 신경세포인 뉴런은 아직 세포로 분화되지 않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완성되지 않은 신경세포로부터 만들어져요. 완성되지 않은 신경세포가 성숙하면 증식 속도가 늦어지면서 뇌세포가 완성됩니다. 조금 어렵지요? 쉽게 설명하면, 고릴라와 침팬지의 뇌세포는 약 5일만에 뇌세포가 완성되지만 사람은 7일이 걸려요. 시간이 더 긴 만큼 인간의 뇌는 유인원보다 정교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달한답니다. 또한 사람 두뇌의 뉴런 수는 유인원보다 3배 이상 많아서 더 뛰어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고릴라나 침팬지는 진화한 지 수백만 년이 흘러서도 여전히 자연 속에서 작은 무리를 짓고 살아갑니다. 반면, 인간은 70억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며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지요.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가 이토록 크게 벌어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인류의 시작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작은 무리를 이루어 밀림에서 살아가는 고릴라와 지구 전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CCO image, 위키미디어 커먼스

더 알아보기 1 인류의 진화를 보여주는 4가지 증거²⁾

인류학자들은 우리의 몸에 인류의 진화를 보여주는 4가지 증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약한 포유류였던 인간이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구 최고의 포식자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볼게요.

첫 번째 증거는 “손목 힘줄”입니다. 탁자 위에 손목을 얹어 놓고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붙여 보세요. 대부분 안쪽 손목의 힘줄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대략 10~15% 정도가 있는데요. 팔뚝의 힘줄, 즉 장장근(Palmaris longus)은 다른 포유류와 달리 절벽을 오르고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앞다리를 팔로 바꾼 인류 생존사의 산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귓바퀴”입니다. 개와 고양이, 여우 등 포유류는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귓바퀴를 움직이지요. 인류는 귓바퀴의 효용이 떨어지자 뇌에서 귀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신호를 조금씩 줄여나갔어요. 하지만 귓바퀴가 움직이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름(arrector pili)”이에요. 갑자기 추워지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혹은 깊은 감동을 받은 경우 “소름 돋았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갑자기 놀랐거나 추위를 느꼈을 때 사람과 동물의 몸은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부의 모공 주변의 미세 근육들을 수축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털이 있는 동물들은 털이 바짝 서게 되고 사람들은 털이 없기 때문에 피부 표면이 마치 닭살처럼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피부의 이러한 특징은 온몸이 거의 털로 덮여 있었던 수만년 전 인류를 떠올리게 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마지막 증거는 “꼬리뼈(coccyx)”예요. 꼬리뼈는 거의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나요. 꼬리뼈는 말 그대로 인류의 조상이 꼬리를 달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모든 척추동물의 태아 신체 발달은 착상 약 4주 동안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배아도 처음에는 다른 척추동물과 비슷하게 마치 꼬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태어난 다음에는 인간이나 꼬리가 필요 없는 유인원은 꼬리뼈의 성장이 수주 만에 멈추도록 유전자가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인류진화의 4가지 증거 중에 몇 가지가 남아있나요? 천천히 나의 몸에서 찾아보세요.

2) <세계일보(2016), “인류의 진화를 보여주는 당신 몸에 있는 4가지 증거”, 2016.3.22.

<http://m.segye.com/view/20160322001166> 참조.

02 성찰하는 자의식의 출현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물은 셀프입니다.”, “추가 반찬은 셀프입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셀프란 스스로 갖다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셀프의 원래 뜻은 무엇일까요? 셀프는 ‘자아’ 또는 ‘자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아, 자신, 자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아는 ‘스스로 자(自)와 나 아(我)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스스로 있는 나’, 혹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나’라는 의미이죠.

그럼 자의식은 무엇일까요? 자의식을 심리학에서는 자아의식이라고 말하고, 철학에서는 자기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는 일, 즉 신체적 특징, 사회적 존재로서의 남과의 관계, 종교적 세계와의 관계 따위의 모든 외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성찰에 의하여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적 세계에 대하여 아는 일입니다.

자의식은 흔히 ‘자각(자기자신을 인식하는 상태/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등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자의식, 즉 자각이란 자신이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수준이 낮지요. 감각적이고 주관적이며 본능적인 수준에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질 낮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의식을 언제쯤 갖게 되었을까요? 호모 사피엔스는 약 10만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장신구, 표식 등을 만들어 내가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별하였습니다.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 사람 등을 상상하고 그것을 조각상, 벽화 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들의 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발전되어 약 6만 년 전~5만 년 전 무렵, 호모 사피엔스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비슷한 두뇌 구조와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성찰하는 자의식’³⁾의 획득, 혹은 ‘인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로써 호모 사피엔스들은 보다 자연스럽게 언어를 사용하고, 복잡한 생각을 표현하며 보다 나은 도구와 상징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침팬지를 뛰어넘어 문화와 문명을 계속 발전시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는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게 될까요?

3) ‘성찰하는 자의식’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신경과학자 에릭 캔들이, ‘인지 혁명’은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행동 현대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알아보기 2 자기성찰지능이란?⁴⁾

자기성찰지능이란 자신의 감정, 재능 등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해 내는 능력,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지식과 그에 기초하여 잘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인식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즐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민감하고 자신의 기분, 정서 상태를 구별해 내며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파악해 냅니다.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강점을 계발할 수 있는 최선의 경로를 만들어 내고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반성하며, 삶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도록 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관심이 많고, 감정 조절 능력이 있으며, 매사에 전략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더 나아가 계획을 잘 세우고,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자기성찰지능을 높이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① 자기 계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 여부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 ② 매일 일기를 쓰거나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 또는 반성하는 글을 씁니다.
 - ③ 자신의 또 다른 면을 알아보는 심리 검사를 해봅니다.
 - ④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 ⑤ 자기 내면세계에 집중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합니다.
 - ⑥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떠올려서 그 대안을 생각해 봅니다.
 - ⑦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을 읽거나 영상을 봅니다.
 - ⑧ 자신을 홍보하는 광고를 만들거나 자서전을 씁니다.
 - ⑨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훈장말을 많이 들려줍니다.
 - ⑩ 자신의 정신을 잘 가꾸게 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합니다.
- 이것들을 잘 읽어 보고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서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합니다.

지식작업 1 주변인을 통해 ‘나’ 알기

1. 활동 소개
 - 인터뷰 방법(선생님 또는 교직원, 친구, 활동(인증샷)에 대해 소개합니다
2. 주변인 인터뷰를 통해 ‘나’에 대해 알기
 - 학교 안에서 만나는 선생님이나 친구들 중 2~3명을 찾아가 평소 ‘나’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좋은 면이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 지에 대해 인터뷰합니다.
 - 약 5~10분간 대화한 후, 질문지에 인터뷰 대상자가 직접 답변을 적도록 합니다.
 - 인터뷰가 끝나면 결과물을 들고 인터뷰 대상자와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3. 인터뷰 내용 및 새롭게 알게 된 ‘나’ 소개하기
 - 강의실에 모여 각자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찍어온 사진들과 함께 발표합니다.
 - 사진과 함께 인상 깊었던 답변들을 소개하며 새롭게 알게 된 ‘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 인터뷰를 하며 느꼈던 감정 등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눕니다.

4) <문용린(2004), 지력혁명, 비즈니스북스> 참조.

1.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탐색합니다.
- 숨겨진 마음 속 표정을 읽어 봅니다.
- 나는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2. 내면초상화

- 내면초상화 알기 : 내면초상화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합니다.
- 내 마음은 이런 모양? : 자신의 존재, 현재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여 나를 탐색합니다.
- 내 마음은 이런 모양! : 나의 존재와 모습을 각종 미술도구를 활용하여 내면초상화로 그리거나 만들어 봅니다.



3. 나의 마음, 너의 마음

- 자신의 내면초상화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현재 지금의 마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 친구들의 내면초상화를 보면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봅니다.

따뜻한하루(2021), "[따뜻한 감성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www.onday.or.kr/wp/?p=24556#cmt

문용린(2004), 지력혁명, 비즈니스북스.

세계일보(2016), "인류의 진화를 보여주는 당신 몸에 있는 4가지 증거", 2016.3.22. <http://m.segye.com/view/20160322001166>

사이언스올, "[과학백과사전] 털세움근(erector muscles of hairs)", <https://www.scienceall.com/%ED%84%B8%EC%84%B8%EC%9B%80%EA%B7%BCerector-muscles-of-hairs>

에릭 캔들(2014), 통찰의 시대, 이한음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유발 하라리(2015), 사피엔스, 조현욱 옮김, 김영사.

조선영(2016), 마음의 모양, 엑스북스.

Benito-Kwiecinski, S., Giandomenico, S.L., Sutcliffe, M., Riis, E.S., Freire-Pritchett, P., Kelava, I., Wunderlich, S., Martin, U., Wray, G.A., McDole, K., Lancaster, M.A.(2021), An early cell shape transition drives evolutionary expansion of the human forebrain. Cell, 184(8), 2084-2102.e19.

수렵 · 채집 시대⁵⁾의 저주

- 질투 · 혐오의 기원

[학습 목표]

- 질투와 혐오의 의미를 알고 이것이 발생하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질투와 혐오를 넘어서 협력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살리에리 증후군(Salieri Syndrome)'은 경쟁자로 여기는 사람이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나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가지 못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절망감이나 질투심 또는 열등의식을 말해요. 이 말은 1984년에 개봉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모차르트(좌)와 살리에리(우)

CCO image, 위키미디어 커먼스

영화 속 주요 인물인 '안토니오 살리에

리'는 모차르트와 동시대에 활동한 음악가로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모차르트와는 달리 재능보다 노력으로 정상급 음악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모차르트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살리에리지만, 그는 늘 모차르트의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살리에리에게는 모차르트 같은 창조적 능력은 없었지만, 그런 재능을 파악할 수 있는 귀가 있었지요.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질투하면서 "신이시여! 어찌하여 제게는 귀만 주고 손은 주지 않으셨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재능에 감사하기보다는 갖지 못한 재능을 부러워하고 원망했던 것이지요. 또한 모차르트는 살리에리가 경멸하는 천박한 짓들을 스스로 없이 행했는데, 그토록 싫어하고 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부러운 재능을 갖고 있으니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겠지요.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리는 "나는 음악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가 돼 있는데, 모차르트는 놀 것 다 놓고 남는 시간에 작곡을 해도 불후의 명작만을 쓴다. 반면에 내가 쓴 곡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세상이 어찌면 이다지도 불공평하단 말이냐!" 라고 시기합니다.

⁵⁾ 이 시기는 인류가 도구를 만들어 동물, 물고기를 잡거나 각종 과일, 곡물 등을 채집하는 활동을 했던 시기로 '구석기 시대(Paleolithic Period)'라고 말하기도 한다.

여러분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대상이 있나요? 또는 반대로 질투나 시기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나요? 우리는 어떨 때 질투심을 느낄까요?

[단원 학습 안내]

이 단원에서는 질투와 혐오의 뜻을 알아보고 이것이 생기는 상황을 탐색합니다. 또한 질투와 혐오를 이기고 협동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 낼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01 / 수렵 · 채집 시대의 저주

여러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의 본성에는 다른 사람이 잘되거나 잘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듯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수백만 년 전의 수렵 · 채집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살기 위해 먹을 것을 찾아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낮에는 변화무쌍한 날씨를 이겨내야 했고 밤에는 대형 동물 무리의 습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상들은 힘을 합쳐 불과 도구를 사용하고 동물들에 맞섰으며, 눈에 띄지 않는 동굴이나 숲속에 쉼터를 만들어 함께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조상들은 서로 돕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집단의 규모는 수백 명, 수천 명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이와 같이 수렵 · 채집 생활은 가족과 동료와 함께 협력하고 이들을 위해 서로 희생하려는 마음을 자라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렵 · 채집 생활은 인류에게 선물만 주지는 않았습니다.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은 "인간의 마음은 수렵 · 채집 시기의 저주에 묶여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저주'로 전해져 온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렵 · 채집인들은 생존을 위해 집단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살기 위해서 집단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몸이 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일부는 집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쫓겨나가나 소외당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은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증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때에 따라서는 경쟁 상대에 대해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괴롭히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차별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질투'라는 감정을 연구한 미국 켄터키대의 리처드 H. 스미스 교수는 '쌈통 심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자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남들의 불행이 우리에게 '실질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졌을 때 기쁘거나 행복한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실질적 이득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자신이 가치있는 존재인지 가늠하기 위해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데요. 상대의 실수로 지위가 낮아진다면 그만큼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는 반사 이익이 생겼지요. 내가 잘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위가 높아지지 않아도, 상대의 실수나 잘못으로도 나의 지위가 높아집니다.

나아가 사람들은 자신이 질투를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질투를 혐오나 증오, 분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요. 상대가 자신보다 뛰어나서 질투한다고 인정하기보다 다른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지요. "개가 뭐가 잘났어? 부모 덕에 호강하는 거지."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 사례이지요. 이렇게 '혐오'의 가면을 쓴 질투는 정의로움까지 앞세웁니다. "부모 덕에 잘살면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다니. 좀 당해 봐야 해." 같지요. 하지만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정의된 혐오는 "어떤 것들을 증오하고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입니다. "역겹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미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썩에서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혐오와 질투는 수렵채집을 하며 살았던 수백만 년 전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여러 마음들 중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뒤처지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공포심과 절박함 때문에 집단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위협하는 능력을 가진 상대에게 질투와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한 상대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며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집단의 강한 결속력의 바탕에는 구성원 간의 치열한 우열 경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류는 생존과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생존을 넘어 지구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서로 싸우고 대립하지 않고 존중하며 돕는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혐오,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알아보기 1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철학적 이유?⁶⁾

- 남 잘되는 꼴 못보는 철학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반에서 공부를 가장 잘 하거나 인기가 많은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해진다면 어떨까요? 그 친구가 걱정되면서도 어쩐지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독일어에는 사덴프로이데(Schadenfreude), 즉 '남의 불행을 보고 고소하게 느끼는 심술궂은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왜 우리는 남이 잘될 때 마음이 불편할까요? 우리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낮고 잘나가는 사람이 망가지고 무너질 때만 고소함을 느끼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나쁘기 때문일까요?
- 내가 1억 받고 원수가 100억 받기 vs 그냥 안 받기!
여러분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안 받기'를 택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원수가 잘 되는 꼴은 배 아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자들의 불행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줄곧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남의 불행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거나, 나아가 직접 상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6) 피터 케이브(2011),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철학적 이유, 배인섭 옮김, 어크로스 참조.

02 / 수렵 · 채집 시대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협력적인 사람 vs 이기적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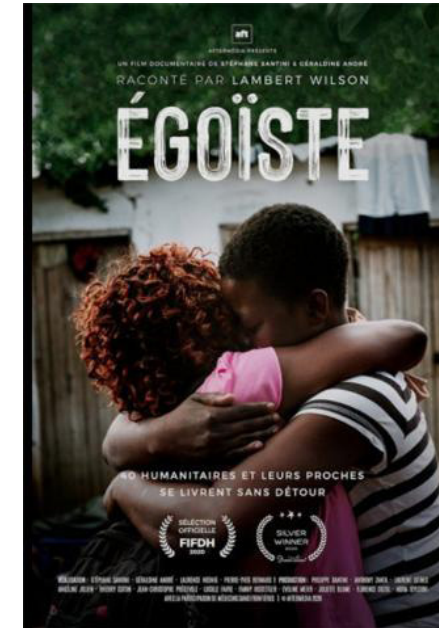
이타심, 용기, 절제, 평화 등으로 뭉친 착한 사람과 이기심, 비겁, 탐욕, 폭력 등으로 뭉친 나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무인도에 협력적인 사람 한 명과 이기적인 사람 한 명이 상륙하였습니다. 얼마 후 우리가 무인도를 다시 방문한다면 협력적인 사람은 죽고 이기적인 사람만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개체 간의 선택에서는 이기적인 쪽이 언제나 살아남기 때문이예요.

이제 같은 조건의 무인도가 세 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도에는 협력적인 사람 두 명이, 두 번째는 협력적인 사람 한 명과 나쁜 사람 한 명,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쁜 사람 두 명이 각각 상륙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이 세 무인도를 방문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무인도에 있었던 협력적인 사람들 두 명은 힘을 합쳐 뗏목을 만들어 이미 탈출했을 것입니다. 협력적인 사람 한 명과 이기적인 사람 한 명이 함께 있었던 두 번째 무인도에서는 나쁜 사람만 혼자 살아남았겠지요. 끝으로 세 번째 무인도의 이기적인 사람만 두 명은 다투기만 해서 크게 다쳤거나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집단 안에서 개인 간의 경쟁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집단 사이의 다툼에서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 승리하게 됩니다. 인류 문명은 자기 이익을 크게 만들고픈 이기심과 공동체를 더 훌륭하게 만들려고 헌신하는 마음이 부딪히는 가운데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협력과 경쟁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모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은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을 확인하고 기르기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여러 문제들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렵 · 채집 시대의 저주에서 벗어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인류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더 알아보기 1 영화 '에고이스트'⁷⁾



에고이스트 포스터

Designed by Altermedia, Médecins Sans Frontières(MSF) et 영화 에고이스트
www.egoiste.film/index_en.html#contact

국경없는의사회의 구호 활동가 40명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에고이스트'는 분쟁, 전염병 등 세계가 처한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1971년 설립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성 · 공정성 · 중립성을 활동 원칙으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며 무력 분쟁, 전염병 창궐, 의료 사각지대, 자연재해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환자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만5000명 이상의 구호 활동가가 70여 개국, 400여 개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국경없는의사회는 1999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지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구호 활동가 40명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지구촌 이야기를 따라가 볼게요.

7) <일사예프(14F), "감염시 '치명률 40%' 정부도 포기한 국가에 나선 의사들 (영화 에고이스트 홍보 영상)", 2021.11.4,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HICwfhMziQ> 참조.

1. 다음 이야기를 잘 살펴보고 아래 질문에 답해 주세요.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로 약 6백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저지른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자, 해외로 도피하여 15년 간 신분을 숨긴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 이스라엘 정보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을 통해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은 상부에서 지시한 명령대로 따랐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아이히만 재판정 모습(왼쪽)과 그의 발언 중 일부(오른쪽)

Designed by 조진호

한편, 독일계 유대인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가 사악하고 악마와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웃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회고하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가치 판단 없이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아이히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각자의 행동이나 일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기계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의도하지 않은 '나쁜 행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 사회에서 당연히 여기는 생각들(관행)을 무조건 따랐을 때 생기는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 유대인 학살이 아이히만 혼자만의 잘못일까요?
-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2. 지구촌 평화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위 이야기를 생각하며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그리거나 간단한 글을 적어 주세요.

에드워드 윌슨(2016), 인간존재의 의미, 이한음 옮김, 사이언스북스.

일사에프(14F), "감염시 '치명률 40%' 정부도 포기한 국가에 나선 의사들 (영화 에고이스트 홍보영상)", 2021.11.4.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HlCwfhMziQ>

장대익(2015), 다윈의 식탁(확장 증보판), 바다출판사.

피터 케이브(2011),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철학적 이유, 배인섭 옮김, 어크로스.

한나 아렌트(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옮김, 한길사.

8) <한나 아렌트(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옮김, 한길사> 참조.

우리는 왜 함께 있어도 싸우지 않을까?

- 인간 무리의 비밀, 표지

[학습 목표]

- 인류 전체가 서로 하나임을 깨달아 서로를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 인류를 하나로 묶어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게 만들 표지를 생각할 수 있다.

2010년 1월 12일, 중남미에 위치한 아이티에서 진도 7.0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로 인해 약 17만 명이 죽고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아이티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재난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지진으로 파괴된 아이티의 도시 모습(왼쪽)과 구호활동을 하는 외국 군인 모습(오른쪽)

CCO image, 위키미디어 커먼스

이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 여러 나라들과 민간 비영리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들은 아이티에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구조대와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였으며, 파괴된 주요 시설들의 복구를 돕기 위해 수천억 원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전 세계 나라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의 갑작스러운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돕고자 노력합니다. 그 나라가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는 것이 국제 사회의 평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국적을 넘어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원 학습 안내]

이 장에서는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겪는 여러 문제나 공통 관심사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인류가 서로를 하나의 공동체로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01 / 전쟁, 경쟁, 그리고 평화

인류에게 제1, 2차 세계대전은 무척 끔찍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1,500만 명이,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무려 5,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뿐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서로를 괴롭히며 잔인하게 죽였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력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경쟁과 전쟁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잔인함은 시간이 가면서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00여 년 전 중국 당(唐)나라에서는 안녹산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죽은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3,60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때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으니, 지금의 인류 규모로 본다면 이 숫자는 무려 4억 3천만 명 가까이 살해된 것에 버금간다고 해요.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전쟁들을 손꼽아 보면, 제1차, 2차 세계대전은 각각 9번째, 16번째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벌어졌던 전쟁이 훨씬 더 잔혹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전쟁에서 사망자는 많아야 수만 명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나아가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를 만드는 데는 그 시대에 가장 새롭고 뛰어난 기술이 쓰이곤 합니다.

인류는 언제나 더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 상대를 누르기 위해 아득바득해 왔어요. 그러면서 과학 기술도 덩달아 발전했습니다. 구리보다 단단한 철(鐵)로 무기를 만들게 되면서, 철로 된 농사 기구도 널리 퍼지는 식이었어요. 인터넷이나 위성항법시스템(GPS)은 현대 사회를 꾸리는 데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이들 역시 전쟁 무기를 개발하면서 세상에 널리 퍼진 기술이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쟁 덕분에 세상에 나타난 발명품들이 무척 많습니다. 옛 인류가 치열하게 다투지 않았다면 과연 '문명의 쌀'이라 불리는 철이 지금처럼 널리 쓰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일상을 꾸는 데 꼭 필요한 여러 발명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화도 다르지 않은데요, 상대를 이기려면 무리가 크고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무리의 규모가 약 150개체를 넘어서면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큰 집단을 이루고 잘 살아갑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운다면 과연 이렇듯 크게 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투지 않고도 서로 간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법과 정부 같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나아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함께 믿는 종교를 만들어 냈습

니다. 정치도 평화를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먹과 칼 대신 말로 다투며 갈등을 풀어내는 작업이 정치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속에는 악마같은 충동도 있고 천사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잔인한 전쟁은 사라져야 하겠지만 경쟁은 평화를 이루는 데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의 선한 천사인 건전한 경쟁을 이끌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은 저절로 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인간은 학습을 통해 누가 우리 편인지를 가늠하곤 하지요. 4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올림픽 경기를 떠올려 봅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당당하게 경기하며 우승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을 응원하게 되지요. 평소에 운동에 관심이 없었던 이들도 이 순간만큼은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선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즉, 인간이 만든 집단, 즉 '인간 무리'는 갈등과 다툼을 잠재우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는 같은 편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확인하고 싶어해요. 이 경우, 응원하는 '대한민국 선수'가 우리를 하나로 묶는 '표지'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이 같은 사람', '같은 학교 졸업생', '같은 가문의 인물' 등 조금만 둘러보아도 우리 생활 곳곳에는 숭한 표지들이 널려 있어요.



차탈회위크에서 발견된 벽화 흔적(왼쪽)과 불에 탄 벽돌 조각들(오른쪽)

CC2.0 image by Dr. Colleen Morgan, 위키미디어 커먼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3%87atalh%C3%B6y%C3%B6k_2008_DSC_0004_\(2721597467\).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3%87atalh%C3%B6y%C3%B6k_2008_DSC_0004_(2721597467).jpg) (왼쪽)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3%87atalh%C3%B6y%C3%B6k_2008_DSC_0010_\(2721590621\).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3%87atalh%C3%B6y%C3%B6k_2008_DSC_0010_(2721590621).jpg) (오른쪽)

나아가 인류 문명은 사회나 국가 같은 큰 무리를 만들기 위해 종교나 사상을 표지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인류 최초의 대규모 공동체인 9,000년 전 만들어진 '차탈회위크(Catalhöyük)'라는 마을 유적에서도, 이미 신앙이라는 인류 공통의 표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며 다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일지라도 같은 사상과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을 알면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각 문명이나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표지'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같은 민족이며 하나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데요, 이렇듯 종교나 역사 이야기들은 서로 경쟁하며 다투던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표지가 되곤 합니다.

더 알아보기 1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건강한 힘, 예술⁹⁾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책을 펴낸 천우연 작가는 하나의 꿈이 생겼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꿈일까요? 바로 고향인 전남 해남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바닷가에 마을 주민과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스코틀랜드, 덴마크, 미국, 멕시코의 예술 마을에서 몇 개월씩 머물며 예술가들이 자연에서 얻은 영감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마을 주민과 어울리는 모습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서로 모르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것은 인류 본연의 자연적인 감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천우연 작가의 꿈과 관련된 '예술'이 아닐까 싶네요. 예술은 창작물을 통해 아름답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활동이지요. 우리는 다른 나라의 멋진 예술 작품을 보며 감동을 받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의 미술 작품이나 문화재 등에 관심을 보입니다.



Designed by brgfx, 프리픽, freepik, freepik.com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움과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예술! 이것도 인류를 이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 어떤 말이나 글보다 한 편의 그림과 작품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예술 외에도 인류를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9) <잡스앤(2017), [Job&人] 세계 곳곳의 예술마을에서 직접 살아보니..., 잡스앤블로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_naver?volumeNo=11499730&memberNo=27908841&vType=VERTICAL> 참조.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CC0 image, 위키미디어 커먼스

여러분은 최근 인류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인류 공통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관심사로 환경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스웨덴 출신의 툰베리는 8살이었던 2011년, 기후 변화에 대해 처음 들은 뒤에 그 심각성을 느끼고 기후 변화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도 기후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랐답니다. 그래서 툰베리는 15살이었던 2018년 여름, 스웨덴의 폭염과 산불이 심했을 당시 스톡홀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 변화의 대책을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1인 캠페인에 전 세계에서 기후 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운동이 잇달았습니다. 이후, 툰베리의 호소에 감명을 받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기후 재앙을 걱정하며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는

대신, 기후 변화의 대책에 대한 동조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또한 그녀는 제24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도 참여하였고, UN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도 연설을 하였으며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지구 전체의 공통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방안 모색은 인류를 하나로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과 지혜,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까요?

★ 생각 더하기

인류의 공통 관심사나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더 찾아 보고, 인류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토의해 봅시다.

인류를 하나로 묶어 주는 '표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표지가 때로는 술한 혐오, 갈등, 전쟁을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인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했던가요? 그냥 만났다면 참 좋은 친구가 되었을 이들을,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유로 멀리했던 적은 없던가요? 나와 다른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 혹은 다른 학교 출신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했거나 따돌림 당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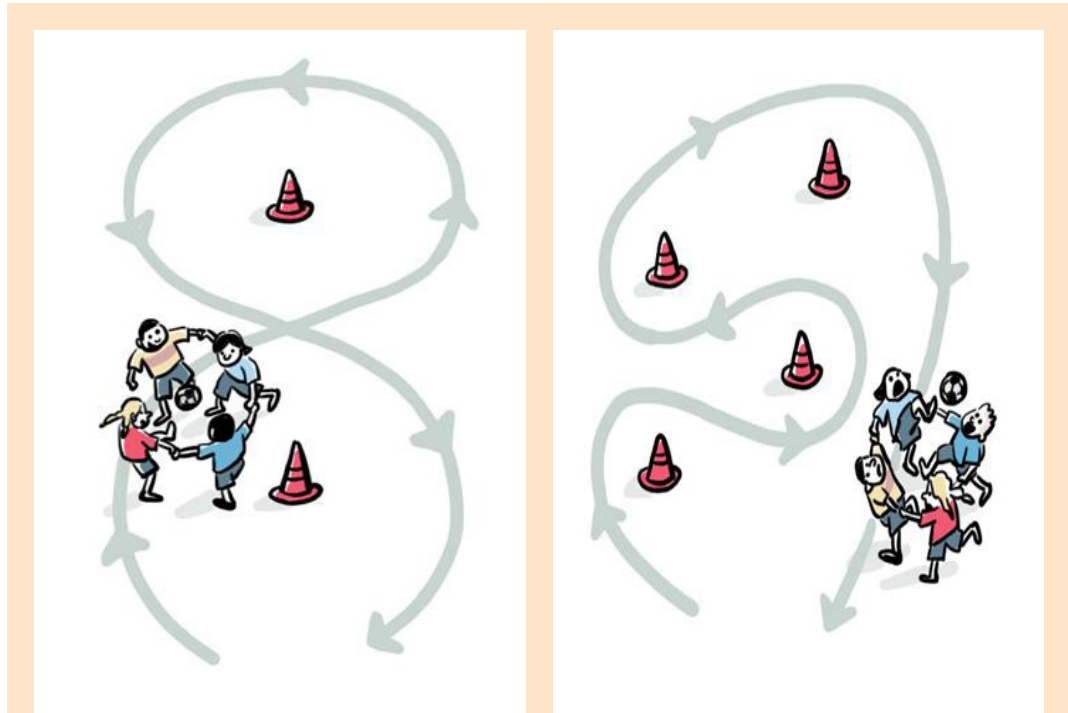


Designed by 조진호

그래서 우리에게서 모든 차별을 덮을 만한, 인류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모을만한 표지가 필요합니다. 인류 모두를 공동체, 즉 하나의 인간 무리로 만들 표지를 만들려는 노력은 문화 발전의 역사 내내 이루어져 왔지요. 그렇다면 인류 모두를 공동체로 묶어 줄 표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딘가에 모두 소속이 되어 생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에요. 그리고 '○○시(구), ○○동'에서 살고 있어요. 그 외에도 '○○학교'를 다녔고, 졸업 이후에는 '○○ 직장(가게, 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해있는 집단을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를 묶어 주는 작은 '표지'라고 할 수 있지요. 이제 인류 전체를 하나로 묶어 줄 '표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식작업 1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느껴봐요!¹⁰⁾



Designed by 조진호

- 다양한 코스에서 공 지키기를 할 때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요?
(예 : 먼저 혼자 빠르게 출발하거나 갑자기 멈춰서 친구들과 동시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공을 무릎 아래로만 차서 친구가 공에 맞지 않도록 합니다.)
- 우리가 만든 원 모양 안에 공을 넣고, 모두의 발로 공을 지키면서 반환점을 돌아옵니다.
- 너무 세게 공을 차면 공이 밖으로 나가거나 친구가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 직선 코스에서 공을 지켜 봅니다.
2. 곡선 코스에서 공을 지켜 봅니다.
3. 활동을 직접 해 보고, 느낀점을 말해 봅니다.

10) <꿈지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2020),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초등용 매뉴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조.

지식작업 2 인류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표지

1. 인류가 서로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라는 연대감을 느끼게 하는 '표지'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2. 친구들과 함께 어떤 분야 또는 주제와 관련하여 공통의 표지를 만들 수 있을지 아래 제시된 분야를 참고하여 토의해 봅시다.

분야/주제 : 환경, 인권, 문화유산, 음악, 미술 작품, 음식, 스포츠 등

3.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류를 하나로 연결시킬 표지와 관련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주세요.(아래 예시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표지의 분야 및 주제	
활동 전 주제 관련 탐구 방법	
표현 방법	
순서	
역할 정하기	
감상평 쓰기	

- 예시 -

- 주제/분야 : 환경
- 활동 방향 : 지구의 날(4월 22일)에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
- 구체적인 활동 방안 : UCC 제작, 광고, 카드뉴스 등

표지의 분야 및 주제	기후위기를 극복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자.
활동 전 주제 관련 탐구 방법	1) 신문기사 검색 2) 지구의 날 관련 동영상 검색
표현 방법	친구들과 함께 지구의 날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뮤직비디오 만들기
순서	1) 자료 검색 2) 역할 정하기 3) 대본 쓰기 4) 촬영 및 편집 5) 발표 및 감상
역할 정하기	감독, 곡 선정 및 개사 작업, 출연, 편집 등
감상평 쓰기	우리 조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인류 공통의 관심사인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모둠원들은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온 힘을 다해 기후 위기 극복 문제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우리는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자는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기대한다. 즉, 이 '뮤직비디오'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표지'이다.

<참고자료>

꿈지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2020),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초 등용 매뉴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국제사회의 아이티 지진 피해 지원 현황과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4(2)

마크 모펫(2020), 인간무리, 왜 무리지어 사는가, 김성훈 옮김, 김영사.

발렌티나 카멜리니(2019), 그레타 툰베리, 최병진 옮김, 주니어김영사.

에드워드 월슨(2013), 지구의 정복자, 이한음 옮김, 사이언스북스.

(사)청소년교육전략21(202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법교육 프로그램 '로티즌(Law-citizen)' 강사 매뉴얼, 법무부.

스티브 핑커(2014), 우리본성의 선한천사, 김명남 옮김, 사이언스북스.

잡스앤(2017), [Job&人] 세계 곳곳의 예술마을에서 직접 살아보니, 천우연 작가 편, 잡스앤 블로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1499730&memberNo=27908841&vType=VERTICAL>

공감하는 존재, 인간

- 거울 뉴런과 마음이론

[학습 목표]

- 인간 두뇌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마음을 헤아리는지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
-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파악하고 감정을 공감할 수 있다.



전쟁을 피해 탈출하는 시리아 난민

CC0 image, Freedom House at 플리커
<https://lic.kr/p/ypMhWc>

어느 기자가 찍은 이 사진은 시리아 난민들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철조망을 힘들게 넘어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위 사진에 담긴 시리아 난민들은 전쟁을 피해 철조망 아래를 통과해 다른 곳으로 급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진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감정을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공감하는 마음은 어떻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단원 학습 안내]

이 단원에서는 인간의 거울 뉴런과 마음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이 공감하는 존재인지 알아봅니다. 또한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을 통하여 갈등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합니다.

01 / 인간의 두뇌와 공감

인간의 두뇌는 1.5kg 남짓으로, 몸무게에서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두뇌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에너지의 약 20~25%를 씁니다. 사람의 두뇌는 인간 몸에 견주어서는 무척 큰 편입니다. 고래와 코끼리는 뇌가 체중의 560분의 1 남짓인 데 비해, 인간의 뇌는 체중의 40분의 1이라고 하니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신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토록 큰 두뇌로 무엇을 할까요? 온종일 무슨 생각을 주로 하는지 살펴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친구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부모님은 내 말에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 “내가 그 일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나올까?” 등등 우리 생각은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것으로 생각이 쏠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큰 두뇌는 ‘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종의 컴퓨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Designed by Pch,vector, 프리픽, Freepik.com

인간처럼 크게 무리를 지어 사는 생명체인 개미는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로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뚜렷한 자기 생각과 개성을 지닌 채로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 사회를 이루고 조화롭게 생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큰 두뇌는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예상하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끊임없이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나누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헤아리며 감정이입을 하여 행하는 행동을 일컫기도 합니다.

더 알아보기 1 공감 능력을 높이는 방법은?¹¹⁾

공감 능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7가지 행동이 필요합니다. 앞글자를 따서 EMPATHY(공감)라고 하는데요. 눈 맞춤, 표정 표현하기, 자세 취하기, 감정 읽기, 어조 표현하기, 귀 기울이기, 반응하기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E	Eye Contact	눈 맞춤	눈 맞춤을 하면 뇌에서 공감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눈맞춤이 중요합니다.
M	Muscles of Facial Expression	표정 표현하기	사람들은 얼굴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내요. 뇌는 타인의 표정을 자동으로 따라 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꼭 필요합니다.
P	Posture	자세 취하기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는 행동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또한 대화가 통하고 공감이 잘 이루어지면 무의식적으로 서로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되어요.
A	Affect	감정 읽기	상대방의 감정을 알려면 표정을 잘 읽어야 합니다. 상대 감정을 읽을 줄 모른다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죠.
T	Tone of Voice	어조 표현하기	운율은 주고받는 말에 감정을 불어넣으며 각 단어의 의미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어조와 운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니 어조에 신경 써 보세요.
H	Hearing the Whole Person	귀 기울이기	'귀 기울이기'는 공감적 경청으로 상대 말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파악한 뒤 반응하는 것을 말해요. 내 감정은 잠시 제쳐두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Y	Your Response	반응하기	귀 기울여듣기에 집중하다 보면 감정이 움직이게 됩니다. 상대가 쏟아놓은 감정이 나의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 활동 1) 짝과 함께 위의 활동을 연습해 보세요. 각 행동들을 짝에게 해보이고 짝이 하는 것도 관찰해 주세요.
- 활동 2) 짝과 함께 활동을 해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02 / 공감은 어떻게 생겨날까?

(1) 거울 뉴런, 마음을 읽는 거울

우리는 상대의 기분과 생각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의 뇌에는 거울 같은 작용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누군가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아야!” 하고 외친다면 우리는 내가 얼굴 찌푸리며 비명을 지르는 상황을 바로 떠올립니다. 그때의 느낌도 같이 따라오지요. 그러면서 ‘아, 지금 저 사람이 아프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두뇌 세포를 ‘거울 뉴런(Mirror Neur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거울 뉴런 덕분에 누군가와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도 나와 같이 기쁨과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기에, 내 생각과 감정에 비추어 누군가가 나에게 해 주었으면 좋아할 만한 일을 상대방에게 하고, 싫어할 만한 짓은 되도록 안 하려 하지요.

이렇듯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리켜 ‘마음이론(Theory of Mind:ToM)’이라고 해요. 마음이론은 마음과 행동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침팬지의 마음이론 실험

- (1) 침팬지 A가 투명유리 건너편의 주스를 꺼내려고 하는 침팬지 B를 발견한다.
- (2) 이 경우 A는 B에게 주스를 꺼낼 수 있는 도구를 전달하였다.
- (3) 하지만 A가 (1)의 상황을 보지 못했을 때에는 B에게 필요한 도구를 주지 못했다.

이를 통해 침팬지는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처럼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행동을 상상하고 추론하지는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Designed by 조진호

11) <헬렌 리스, 리즈 네포렌트(2019), 최고의 나를 만드는 공감 능력, 김은지 옮김, 코리아> 참조.



정인이 학대 양부모 처벌을 촉구 하는 시민
CC4.0 image by 고려, 위키미디어 커먼즈
<https://bit.ly/3Q5UXLH>



사람들이 남긴 정인이 추모 메시지
CC4.0 image by 고려, 위키미디어 커먼즈
<https://bit.ly/3MCR3J2>

2021년 1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이른 새벽부터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자신들이 키우던 아이를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한 젊은 부부의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그 부부는 바로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게 만든 정인이의 양부모였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13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살인 사건으로 양부모가 16개월 된 정인이를 지속적인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든 일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뉴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정인이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인이를 추모하는 '#정인아 미안해 해줘태그 운동, 추모 편지, 쪽지 남기기 등' 여러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며 반성했습니다. SNS로 퍼져 나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 많은 연예인, 운동 선수, 정치인들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정인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 청원>에는 불과 10여일 만에 20만 명이상이 동의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2월 26일에는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이 알려지고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것이었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함께 공감한 내용이 공론화되었을 때 그 힘은 매우 큼니다. 단순한 동정심, 분노가 행동적 공감으로 확장되어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2)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잘 읽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불쾌하고 싫은데, 상대가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짓궂은 농담을 계속한다면요?

오해와 불만이 쌓이고 다툼이 벌어지겠지요. 세상의 많은 문제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생기곤 합니다.



Designed by Pch.vector, 프리픽, Freepik.com

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읽는 '거울 뉴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살피고 다양한 감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역지사지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식작업 1 내가 가진 감정의 깊이는?¹²⁾

1. 감정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기본 감정에는 기쁨, 믿음, 공포, 놀람, 슬픔, 역겨움, 화, 기대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가 격해지면 분노가 됩니다. 화가 연해지면 짜증이 되지요. 감정의 종류와 깊이를 살펴보세요.

감정의 깊이 & 종류판	
감정 깊이	감정의 종류
진한 감정	환희 (관 기쁨) 존경 경악 당황 (관 슬픔) 혐오 분노 각성 (관 열심)
기본 감정	기쁨 믿음 공포 놀람 슬픔 역겨움 화 기대
연한 감정	평온 수용 (받아들임) 불안 혼란 수심 지루함 짜증 관심

2.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어떤 종류이고 어디쯤인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감정카드 중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5가지를 고르세요.
3. 나와 같은 감정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 5명을 만나서 서로가 가진 감정과 그것을 느낀 이유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다 완료하면 '미션 클리어'를 외칩니다.

12) <꿈지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2020),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초등용 매뉴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조.

지식작업 2 공감쪽지 보내기



1. 자신이 고민하는 일이나 주변에서 본 고민거리를 쪽지에 적어 바구니에 넣으세요.
2. 바구니에 있는 쪽지를 하나 골라 친구가 적은 내용 밑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한 내용을 적어 보아요.
(예 : 나도 ~한 일이 있었어. 많이 힘들겠구나. 이럴 땐 ~방법으로 해결하니 참 좋았어.)
3. 다시 쪽지를 바구니에 넣고 다른 쪽지를 골라 공감 내용을 적어 주세요.
4. 바구니의 쪽지를 모두 함께 읽으며 자신의 고민거리에 어떤 공감과 해결 방법이 적혀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참고자료>

꿈지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2020),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초등용 매뉴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마이클 토마스(2011), 이기적 원숭이와 이타적 인간, 허준석 옮김, 이음.

제레미 리프킨(2009), 공감의 시대, 이경남 옮김, 민음사.

크리스티안 케이스스(2018), 인간은 어떻게 서로를 공감하는가, 고은미,김잔디 옮김, 바다출판사.

파이낸셜뉴스(2021), "정인이 사건' 분노를 넘어, 가야할 길은?", 2021. 1. 22. www.fnnews.com/news/202101220924132472

헬렌 리스, 리즈 네포렌트(2019), 최고의 나를 만드는 공감 능력, 김은지 옮김, 코리아.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

- 기억과 학습

[학습 목표]

- 마음의 작동 원리인 기억과 학습(메타인지)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편견을 없애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의 모습

cc0 image, Downloaded from 위키미디어 커먼즈,
<https://bit.ly/3lvFdoi>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은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져 있지만, 그 말은 사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던 문구였어요. 당시 아테네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을 만큼 유명한 말이었죠. 원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주인공은 고대 그리스의 7현인 중 한 명이었던 탈레스였다고 전해지곤 해요.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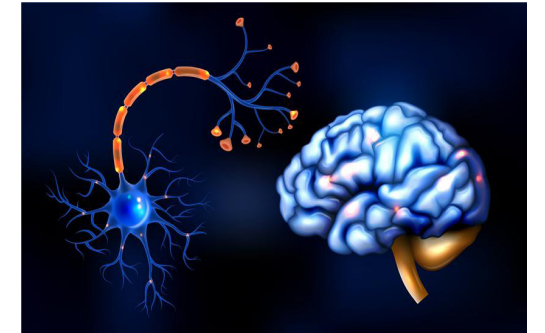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그 말이 소크라테스의 말로 전해지게 된 것일까요? 소크라테스가 그 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아냈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너(나) 자신을 알라’는 말은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할 때, 나 자신의 지식, 사고, 행동, 마음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점차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 자신을 알아보는 활동’을 한다면 나의 잘못된 믿음이나 편견 등을 깨닫고 이를 없애며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단원 학습 안내]

이 단원에서는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인 기억과 학습, 메타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나에게 있는 편견과 잘못된 믿음을 찾아 이를 없애려는 노력을 통해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01 마음의 작동 원리 : 기억

우리의 두뇌는 무려 1,000억 개의 신경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이런 신경 세포를 이용하여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익혀야 할지를 선별하여 냅니다. ‘기억’이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특정 형태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재생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뇌에 저장하기도 하고, 기억된 것을 잊지 않도록 유지하기도 하며, 유지한 것을 회상하기도 하는 것 모두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죠.



Designed by macrovector, 프리픽, www.freepik.com

인간의 기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써서 외워야만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두뇌에 새겨지는 것도 있는데요, 과학 법칙이나 수학 공식은 이해하며 거듭해서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말 문법을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문법을 갖추어 이야기하고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쓰는 가운데 문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슬픔, 분노, 놀라움, 두려움, 역겨움, 행복 등의 감정들은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시작점입니다.



Designed by 조진호

더 알아보기 1 마음을 움직이는 기억 : 당신이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¹³⁾

2001년, 한 사업가가 무려 3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카이스트 대학에 기부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같은 사업가가 카이스트에 또 다시 215억 원의 재산을 기부하여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사업가가 카이스트에 거금을 기부하면서 내건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기부금의 집행을 카이스트에 재직 중인 한 명의 교수에게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큰돈을 한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연구 발전이 안 되어서 우리 사업이 부진하여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탁한 것도 아닌 데 그 교수님이 찾아와서 우리 회사에 첨단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한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이렇게 기부자는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기부를 받은 교수에게 그 회사에 그 좋은, 훌륭한 기술을 왜 그냥 전수해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국가가 저를 선진국 유학까지 시켜서 저를 과학 기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에 봉사하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기부를 받은 교수는 기부금으로 IT+BT 융합기술을 개발하여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받은 만큼 베푸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이런은 “남에게 베푸는 것은 잊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억하는 일은 마음을 작동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여 세상을 빛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13) <따뜻한하루(2020), “[따뜻한 감성편지] 당신이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 , 따뜻한 감성편지 게시판,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홈페이지. www. onday.or.kr/wp/?p=21856) 참조.

지식작업 1 기억력 향상 연습해 보기¹⁴⁾

1. 아래의 표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활동 예시에서 1가지 이상 해보고 내가 한 노력을 써 봅시다.

기억력 향상법	기억력 향상 활동 예시	내가 한 노력 써 보기
새로운 것 배우기	① 새로운 언어 배우기 ② 새로운 주제 연구하기 ③ 악기 연주하기 ④ 관심이 가는 사실 찾아보기 ⑤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 등	
간단한 정보를 기억하기	① 전화번호 ② 생일 ③ 마트에 가서 살 것 ④ 주소 등 기억해 보기	
잘 쉬기	① 매일 8시간 이상 잠자기 ② 20분 정도 낮잠 자기 ③ 피곤을 느끼면 쉬기 등	
잘 먹기	① 올리브유, 코코넛, 말린 과일이나 견과류, 연어 등 두뇌에 좋은 음식 먹기 ② 영양가를 생각하여 골고루 먹기	
친구 만나기	① 친구들과 대화하기 ② 친구들과 모여서 관심있는 행동이나 놀이 같이하기	
머릿속에 지도 만들기	① 새로운 장소를 방문할 때처럼 마음속에 새로운 지도를 그려보기 ② 전체 경로를 추적하고, 그 길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기 등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손 사용하기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① 글쓰기 ② 양치하기 ③ 전화 통화하기 ④ 손가락 사용하기 등 해보기	
음악 듣기	① 클래식 음악 듣기 ②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2. 기억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면서 모두 친구들의 속마음이나 기분도 알아보도록 합니다. 친구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생활해 봅시다.

14) <스즈키 겐지(2014), 기억력 향상법, 임종삼 옮김, 으뜸사> 참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헤아리는 능력은 어떻게 갖추게 될까요? 사람들은 슬픔, 분노, 놀라움, 두려움, 역겨움, 행복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는 표정으로 드러냅니다.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시각장애인도 기쁠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며 웃음을 짓고 슬플 때는 눈을 찡그리며 입꼬리가 내려갑니다. 이처럼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다른 이들과 비슷한 표정으로 드러냅니다. 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유사한 정신과 마음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인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아는 능력입니다.
Designed by 조진호



메타인지는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정확히 파악하게 도와줍니다.
Designed by 조진호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타고난 감정들만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미숙할 거야, 외국인들은 우리와는 다를 거야.’ 등의 편견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 스며들어 있지요. 하지만 인간은 무심코 품게 되는 잘못된 믿음과 생각, 이에 대한 혐오 등의 감정을 깨닫고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인지(meta-cognition)’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들여다보듯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으며, 그것을 알게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등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지식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마음과 행동을 포함한 자신의 여러 모습에 대한 이해까지 포함합니다. “내가 지금 왜 기분이 나빠졌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제대로 웃고 그림을 가렸다고 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들을 하다 보면 나의 본심과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피부색은 어떤지, 어디에 사는지 등등 사람들을 차별하며 갈라놓게 하는 잘못된 믿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없애려면 우리 느낌과 감정, 생각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제대로 느끼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바로 메타인지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미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메타인지를 강화하기 위한 학습법을 펼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 문답의 방법을 썼는데요,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반복하면서 관련 개념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더 많은 사고를 하게 된다고 본 것이지요. 나아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대상에게 질문을 계속함으로써 스스로의 무지를 자각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자신이 모르거나 착각한 부분을 발견하여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게 했던 것이지요.



Designed by liravega, 프리픽, freepik.com

리사 손(콜롬비아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질문에 대한 정해진 하나의 답을 찾고 성과를 내는 것은 AI 로봇이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며 “인간은 계속 배우고 학습하며 여러 개의 답을 찾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라고 충고합니다. 메타인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오랜 시간 어렵게 노력해야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배운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어렵고 힘들게 학습한 것은 뇌에 남으므로 계속 반복해서 보는 학습이 아닌 스스로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셀프 테스트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메타인지 훈련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아가 리사 손 교수는 “실수하는 것, 오랜 시간 학습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감, 호기심,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메타인지를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5) <리사 손 (2019), 메타인지 학습법, 21세기북스> 참조.

지식작업 2 나의 메타인지 능력 테스트 해보기

1. 여러분의 메타인지 능력은 어떤가요? 다음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메타인지 능력을 알아보세요.



Designed by Jcomp, 프리픽, freepik.com

[활동 순서]

- ① 선생님이 보여주는 무작위의 단어 20개를 외웁니다.
- ② 10분 동안 암기 후, 테스트하기 전에 자신이 확실히 외운 단어가 몇 개인지 적어 봅니다. 그리고 외운 단어를 적어 보세요.
- ③ 다시 단어를 보면서 단어가 맞았는지 채점을 합니다.
- ④ 테스트 전에 외웠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단어의 갯수와 실제 정답 수를 비교합니다.
- ⑤ 예상한 정답의 수와 실제 정답 수의 차이 범위가 적을 수록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것이고, 차이가 클수록 자신이 아는 것의 범위를 모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메타인지 능력이 낮은 것입니다.

2. 나의 메타인지 확인하기

- 내가 혐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과연 타당할까요?
내가 가진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잘 살펴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참고자료>

따뜻한하루(2020), "[따뜻한 감성편지] 당신이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 따뜻한 감성편지 게시판,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홈페이지.

www.onday.or.kr/wp/?p=21856

리사 손 (2019), 메타인지 학습법, 21세기북스.

사이언스타임즈(2019), "인간만의 메타인지를 살려라. 시가 넘보지 못할 인간만의 능력으로 인식", 2019.6.27. <https://bit.ly/3Nr5b8g>

스즈키 겐지(2014), 기억력 향상법, 임종삼 옮김. 으뜸사.

임영익(2014), 메타생각, 리콘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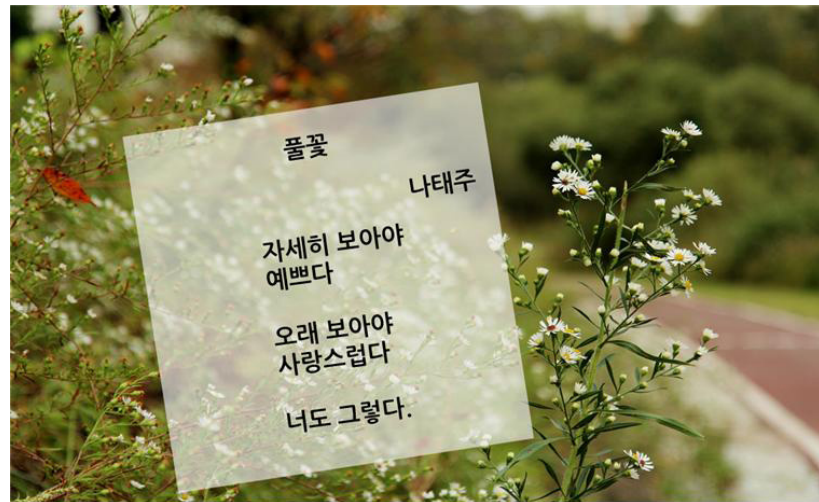
뇌는 어떻게 본능을 다스릴까?

-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

[학습 목표]

-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
- 빠른 생각인 오해나 혐오, 편견에 빠지지 않고, 신중하게 느린 생각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평소 나와 생각이나 기준이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의견이 틀렸다고 선불리 판단해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만이 옳고, 상대 입장은 틀렸다면 따지게 되지 않던가요? 아래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읽어 보고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나태주 시인 <풀꽃>(2021)

위 시는 들에 피는 꽃조차도 그냥 스치듯이 보는 것보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때도 마찬가지로이지 않을까요?

선부르게 판단하는 것보다 상대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헤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면 자세히 알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이 다가오면서 다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혐오나 편견, 갈등이 더 커지게 되지요. 선부른 '빠른 생각', '빠른 판단'보다는, 천천히 돌아간다는 기분으로 느린 판단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단원 학습 안내]

이 단원에서는 우리 주변과 사회, 세계 곳곳에 서로에 대한 미움과 오해로부터 비롯된 모습들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성과 신중함에 바탕을 둔 '느린 생각'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합니다.

01 빠른 생각 VS 느린 생각

▶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나 태도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문의 손잡이를 돌릴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사실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문이 열릴 테니까요. 하지만 덜컥하며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제서야 우리는 "왜 이렇지?" 하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왜 문이 안 열리지?" 라고 물음을 던지며 천천히 손잡이를 살펴보며 작동하는 원리를 따져 보게 되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평소 관계에 문제가 없고 서로 잘 대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살펴보지 않아요. 사이가 틀어지고 서먹해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비로소 "왜 저렇게 말하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며 따져보게 되지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이 별 탈 없이 굴러가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일 때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믿음으로 누군가를 안 좋게 바라보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생각 더하기

왼쪽의 그림은 친구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계속 말하다 싸우는 장면입니다. 친구들이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본다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려 봅시다.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Designed by 조진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이후의 상황</p>
---	---

더 알아보기 1 **바르게 살고자 늘 노력했던 '공자'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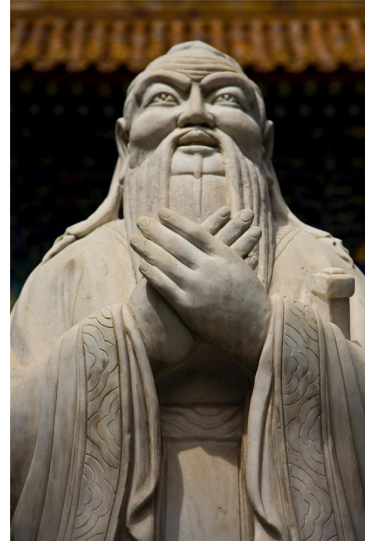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어릴 적 어른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고 흥내 낼 정도로 뛰어난 관찰력과 표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맞이하였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공자는 실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의 나이 스무 살 무렵에는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하급 관직을 맡아 식량이 사라지거나 낭비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 그들을 성심성의껏 돌보았고, 그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자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다른 학자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등 끊임없이 학문을 닦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는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음악을 배울 때는 박자나 음정만큼이나 곡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자는 못된 관리나 임금은 호랑이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착한 마음은 칼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는데, 자신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에게조차 착한 마음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르칠 때 굶거나 가난하게 지내기도 했지만 "가난해도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깊이 생각해야 좋은 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깊이 생각해 보고 실천하면 공자처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CCO image, 위키미디어커먼스

★ (생각해 보기) 공자의 삶 vs 나의 삶	
공자는 자신의 삶을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기 시작했고, 서른 살에는 뜻을 확실하게 세웠으며, 마흔 살에는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쉰 살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예순 살에는 남의 말을 쉽게 이해하게 되었고, 일흔 살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우리도 공자처럼 각자의 삶을 말해 봅시다. '나는 _____ 살에 _____ _____ _____ _____'

지식작업 1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각자의 말투와 행동들〉

- 공자는 공부할 때 가장 좋지 않은 태도는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요.

첫째, 무엇이든지 함부로 미루어 생각하지 말 것.
둘째, 나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릴 것.
셋째, 한쪽만 보고 다 본 것처럼 생각하지 말 것.
넷째, 내 의견을 내세우느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공자가 정하여 실천했던 행동 원칙처럼 내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아래 칸에 적어 봅시다.

- 각자가 정한 행동 원칙들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02 빠른 생각에서 느린 생각으로

▶ 잠깐 멈추고, 느린 생각으로 주변을 돌아보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¹⁶⁾은 우리의 사고를 '빠른 생각(fast thinking)'과 '느린 생각(slow thinking)'으로 나누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해법을 찾는 데는 노력과 에너지가 많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대부분의 상황을 '빠른 생각'에 따라 처리합니다. 별 생각 없이 몸에 배어 있는 습관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나아가 본능이 시키는대로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일이 굴러가지 않을 때야 우리는 '느린 생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과연 옳았을까?", "꼭 이래야 했었나?" 하고 따지며 찬찬히 문제를 살펴보게 되지요.



Designed by 조진호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널리 퍼진 편견과 혐오, 폭력을 낳는 잘못된 믿음들도 '빠른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낯선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는 적잖은 품과 시간이 드는 탓입니다. 반면, "○○ 나라 사람들은 원래 게을러.", "○○ 출신들은 거짓말을 잘해."라는 편견에 기댈 때는 공들여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요. 사회에 널리 퍼진 익숙한 믿음을 따르는 데다가,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원래 지탄받는 일로 생각하니깐요.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 대한 세상의 편견과 혐오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난민 혐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외부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역시 빠른 생각 탓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고 사람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느린 생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싫어했을까?", "혹시 그들이 아닌 우리한테 잘못이 있지는 않았을까?", "내 삶과 사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느린 생각을 펼치기 시작하면 서로 오해가 풀리거나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요. 하지만 느린 생각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는 계속 커지고 갈등, 혐오가 자라

16) 대니얼 카너먼은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빠른 생각을 시스템1, 느린 생각을 시스템2로 표현하였습니다.

나며 심지어 전쟁까지 벌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이 옳은 것인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린 생각은 빠른 생각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식작업 2 빠른 말(생각)과 느린 말(생각)을 비교해 보기

1. '빠른 생각'은 몸에 배어 있는 습관대로 따라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부른 판단으로 다른 사람(상황)을 가늠해서 편견에 빠지기 쉽지요. 반면, '느린 생각'은 지금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반성하며 돌아보는 자세입니다. 한 번 또는 천천히 거듭해서 생각해 보세요.
2. 내가 경험한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을 적어 봅시다.
3. 모둠원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느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봅시다.

빠른 생각 🚫	느린 생각 😊
예시 : "○○ 나라 사람들은 못 살아서 불쌍해. 그들과 친해지기 어려워."	예시 :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적이 있었지. 그들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아하고 환영해 주니 정말 고맙다고 생각해. 그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지."

<참고자료>

꿈지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2020),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초 등용 매뉴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청소년교육전략21(202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법교육 프로그램 '로티즌(Law-citizen)' 강사 매뉴얼, 법무부.

봉현주(2014), 바르게 살아야 공자, 한국툴스토이.

리쉬 (2021), 인간, 공자의 삶과 논어의 탄생, 박희선 옮김, 미디어미디어.

대니얼 카너먼(2018), 생각에 관한 생각, 이창신 옮김, 김영사.

협오와 편견을 이기는 생각 기술

- 과학적 사고와 반증 가능성

[학습 목표]

- 편견과 혐오의 의미를 알고 이를 없애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과학적 사고를 통해 혐오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들은 보들보들 아주 아름다운 동물이었어요. 하지만 생긴 것과는 달리 마음씨가 고약했답니다. 주위에서 정답게 인사하는 돼지에게는 콧구멍이 하늘로 들렸다고 놀렸고, 도토리를 주려는 다람쥐에게는 이가 많이 튀어나왔다며 면박을 주었어요.

이렇게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는 데 어떤 친구가 좋아하겠어요? 결국 보들은 벌을 받아 아름다운 털을 다 잃고 몸은 길쭉해졌어요. 다리도 모두 사라져 버려, 기어 다니는 신세가 되었지요. 이는 최향숙 작가의 동화 《보들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예쁘거나 공부를 잘해서 뽑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뽑내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은 옳지 못하답니다.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누구도 친구가 되어 주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재주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친구가 없다면 심심하고 외로워서 슬플 텐데요. 혹시 우리도 보들처럼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한 적이 없나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진 경우가 없을까요?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대한 경우는 없나요?



Designed by pikisuperstar, 프리픽, www.freepik.com

[단원 학습 안내]

이 단원에서는 인간의 거울 뉴런과 마음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인지 알아봅니다. 또한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을 통하여 갈등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합니다.

01 / 편견 이겨내기

“나는 정말 뛰어난데, 저들은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데 저들은 노력도 안 하고 게으르구나.” 등등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내뱉는 편견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를 ‘우리’로 바꾸면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무척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민족이지요. 우리는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누군가 잘난 척할 때는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우리’의 뛰어난 앞세울 때는 마음이 끌리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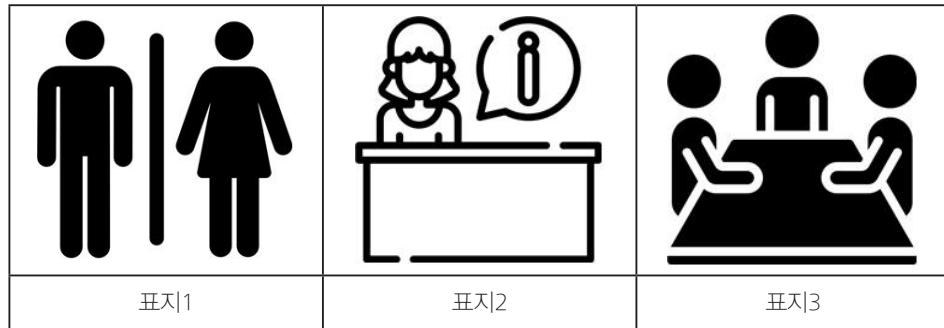
이러한 ‘우리가 더 도덕적이며 올바른 사람들이고, 상대방은 옳지 못하다는 믿음’은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곤 합니다. 다른 무리와 다툴 때는 사회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하기 때문이죠. ‘선한 우리들’이 ‘악의 무리’를 무찌른다고 여겨야 싸울 명분도, 의지도 굳건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틀렸고 상대가 옳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고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싶은 사실만 바라보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좋지 않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는 ‘우리만 최고’라는 이른바 ‘내 집단 편견’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Designed by pikisuperstar, 프리픽, www.freepik.com

지식작업 1 우리 주변의 편견 찾기



1. 위 표지들은 기호와 그림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픽토그램입니다. 아래 표에서 각각의 표지들에 대한 설명을 읽고 그것에 맞는 표지 번호를 적어 주세요.

설명	표지 번호
가. 이곳은 화장실입니다.	
나. 이곳은 안내 데스크입니다.	
다. 이곳은 회의실입니다.	

2. 이러한 픽토그램에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래 기사를 읽어 보고 위 픽토그램들에 숨겨진 편견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공공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는 한눈에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사람의 형상이나 행동을 단순화한 픽토그램(Pictogram)의 형태를 띤다. 문맹자나 외국인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 도안은 일반성과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 (중략) 이처럼 무수히 많은 장소에 반복 배치되는 공공안내표지에 성역할을 구분하는 고정관념이 배어 있다는 점은 문제다. 무심히 지나친다 해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인식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2019. 6. 27.일자 기사 중 일부)

표지 1 : _____
 표지 2 : _____
 표지 3 : _____

3.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 표지에서 편견이 있다면 찾아 봅시다.

더 읽어보기 500년의 금기를 깬 이야기¹⁷⁾

미국의 발레단 '아메리칸 발레시어터'는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발레단으로 손꼽힙니다. 이곳에서 수석 무용수가 된 발레리나 미스티 코플랜드는 발레 500년 역사에서 가장 빛났던 흑인 발레리나입니다.



Designed by 조진호

미스티 코플랜드는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선생님께서 지역 청소년 클럽에서 발레를 배워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13살에 발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래보다 매우 늦은 시기에 시작했음에도 그녀는 발레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남들은 성공하는 데 1년 정도 걸리는 동작을 단 3개월만에 성공했다고 해요.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발레 아카데미에서 나이가 너무 많거나 뚱뚱하고 근육질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실제 이유는 그녀의 피부색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발레 분야는 백인 중심이어서 흑인이 무용수가 되거나 주인공을 맡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피나는 연습과 노력 끝에 마침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고, 결국 아메리칸 발레시어터에도 입단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차별의 시선과 부상 등으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녀는 더욱 더 이를 악물고 연습했고, 2007년 흑인 발레리나로서는 처음으로 '백조의 호수'의 주인공을 맡아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2015년도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뽑히기도 했어요.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결국 미스티 코플랜드에 대한 편견은 '사실도, 진실도 아닌 한 사람 또는 특정 집단의 생각'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편견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면 자신을 그곳에 가두지 말고 에너지를 가지 있는 곳에 사용하세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자 자신을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17) <따뜻한하루(2021), "500년 금기를 깬다", 사단법인 따뜻한하루 홈페이지 www.onday.or.kr/wp/?p=23640> 참조.

02 과학적 사고와 반증 가능성

과학적 사고는 다양한 경험과 측정에 바탕을 둔 증거를 활용하여 현상의 원리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과학적 사고로 오랜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핵심은 '다시 생각하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진짜 맞는지 의심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가지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이를 근거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계속 수정·보완(up-date)하는 것"이 과학적 사고의 핵심이지요.



Designed by jcomp, 프리픽, freepik.com

그렇다면 온갖 편견을 이겨내며 과학적으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과 주장이 틀렸음을 보일 방법, 즉 '반증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라는 주장은 맞았는지 그릇되었는지를 실험을 통해 따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신이 화가 나서 그놈들에게 벌을 내렸다."는 주장은 옳고 그름을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논의를 많이 해도 제각각 자기 주장만 힘주어 거듭할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동원해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는 믿을 만한 근거와 논리적인 생각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고 믿을 만한 사실을 찾아서 믿음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통해 우리는 편견과 혐오 없이 균형잡힌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 읽어보기 과학적 사고로 편견과 혐오를 없애는 방법은?

고정관념, 편견, 혐오 등은 사람이 태어나 특정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차별과 폭력을 초래하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실마리 역시 우리의 가정, 학교, 사회에 있지 않을까요?

어느 교수님께서 미국 유학 시절 초등학교 딸 아이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백인 아이들, 흑인·멕시코인들이 힘들게 하진 않아요?"

딸 아이가 반사적으로 대답했죠.

"Everybody is different!(모든 사람은 달라요!)"

답임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라 즉시 대답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늘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편견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근거에 기초한 감정적 태도와 제한된 경험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낯선 이와 접촉을 늘려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협동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히 지내고 접촉할 때 편견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언어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가 지닌 특징을 집단 전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면 편견이 강화됩니다. 예컨대, "남자아이들은 수학을 잘해.", "똥 똥한 친구들은 게을러."처럼 집단 전체를 일반화하기보다, "그 아이는 수학을 잘해"처럼 개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짚어 말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특성으로 이야기 할 경우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애고 구별짓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이 편견과 혐오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좋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근거가 되는 과학 원리와 이론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즉 과학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아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자각 없이는 대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현대 사회에는 가짜 뉴스가 넘실듭니다. 가짜 뉴스는 '일반적인 뉴스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정보의 형태로 보이지만, 객관적인 사실 전달과 거리가 먼 정보들. 허위 정보와 비슷한 정보', 즉 '뉴스처럼 보이는 아무 말'을 뜻합니다.

가짜 뉴스를 믿게 되는 데에는 해당 뉴스를 '믿고 싶어서' 믿는다는 인지적 편향이 한 몫을 합니다. 즉, 속았다기보다 나름의 동기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짜 뉴스라도 계속 접하게 되면 익숙해지지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정보라도 자주 노출시켜 자주 보게 만들면 사람들은 그 정보를 점점 더 "정확하다"고 평가하게 된답니다.

가짜 뉴스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분별 능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과학적 문해력(Scientific Literacy)을 키워야 합니다. 과학적 문해력은 숫자나 그래프로 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과학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생각 더하기

1.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해 봅시다.

- “백신 접종 부위에는 자석이 붙으니 나노 로봇이 들어 있다고?”
- “코로나 백신 맞으면 몸에 무선 인식칩이 삽입된다?”
- “백신 맞으면 유전자가 바뀐다?”
- “백신 예방효과 불가능, 백신 안에 미생물이 산다고?”



2. 아래 키워드를 보며 가짜 정보를 어떻게 식별, 판단할 수 있을지 말해 봅시다.
 - 어디에 실린 글인가?,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가?, 정보에 편견은 없을까?, 전체 내용 중 일부만 과장하여 왜곡하지는 않았을까?

3. SNS나 신문기사에서 가짜뉴스를 찾아 이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고쳐 봅시다.

최향숙(2021), 보들 이야기, 인북
 따뜻한하루(2021), “500년 금기를 깬다”, 사단법인 따뜻한하루 홈페이지 www.onday.or.kr/wp/?p=23640
 매일신문(2018), “[생각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편견,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2018.8.13. <http://news.imaeil.com/page/view/2018081311155513158>
 대학지성(2021), “편견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편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 뿐이다”, 2021.4.4.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6>
 서울신문(2022), “과학 모르는 한국 성인들, 코로나 시대 안녕하시겠습니까?”, 2022.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05015001>
 동아사이언스(2022), “[박진영의 사회심리학] 가짜뉴스에 쉽게 빠지는 사람의 특성”, 동아사이언스 2022.2.26.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52589>
 한국일보(2017), “가짜뉴스가 퍼지는 원인은?”, 2017. 1. 26. <https://www.youtube.com/watch?v=luMHP9s55tY>
 한국일보(2019), “육아는 여성 뭇...성 역할 강요하는 안내표지”, 2019.6.27.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06261531796334>

기술과 문화 공진화

- 21세기 문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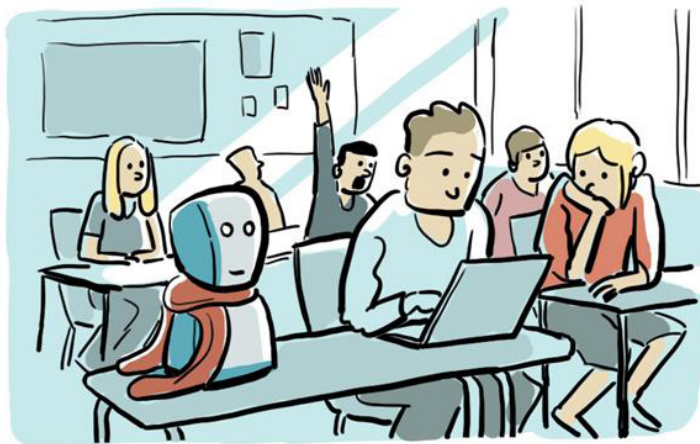
[학습 목표]

- 유전자-문화 공진화, 기술과 문화 공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 발전에 따른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나를 대신하여 학교에 가는 로봇

독일 베를린의 초등학교 교실에는 로봇이 함께 수업을 받습니다. 요슈아의 자리에 앉은 이 로봇은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요슈아를 대신하여 수업에 참석하는 '요슈아의 아바타 학습 로봇'입니다. 요슈아는 심각한 폐질환으로 어릴 때부터 기관지 절개술을 받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민간단체에서 학습 로봇을 요슈아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요슈아는 학습 로봇이 전달해 주는 영상을 통해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슈아는 학교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학습 로봇이 보내주는 자료를 받아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학교에 가는 로봇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esigned by pikisuperstar, 프리픽, www.freepi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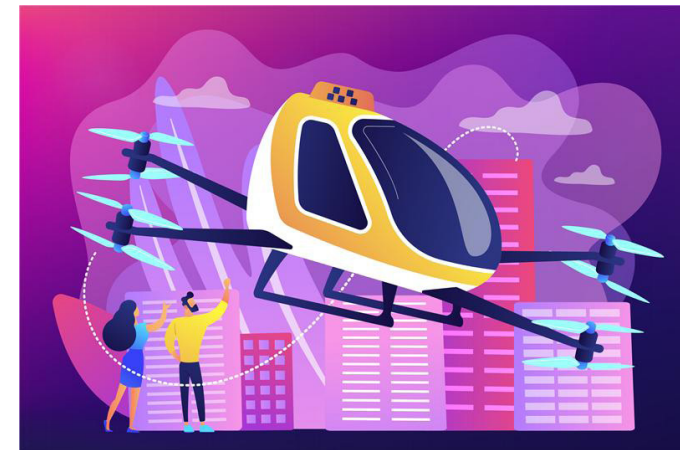
[단원 학습 안내]

이 단원에서는 유전자-문화 공진화와 기술과 문화 공진화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01 / 기술과 문화 공진화

불을 사용함으로써 인간 진화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먹게 되면서 날 고기를 먹을 때처럼 턱이 크고 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씹는 데 필요한 근육이 점차 줄어들고 그 빈자리에 두뇌가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또한 사냥을 위해 보다 정교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어깨와 손목의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손재주와 던지기 능력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몸과 마음의 유전자가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바뀐 유전자에 걸맞게 인류는 다시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를 '유전자-문화 공진화'라고 합니다.



Designed by vectorjuice, 프리픽, freepik.com

하지만 인류의 진화 속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류의 진화는 수만 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서서히 이루어지지만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며 변화하니까요. 손 안의 작은 컴퓨터인 휴대전화, 자율주행 자동차, 다양한 분야의 로봇 등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과학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맞추어 문화의 변화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많은 일들이 간편하게 해결되고, 우주 여행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지만 인류의 몸과 마음은 무리 지어 사냥을 다니던 6만 년 전 수렵·채집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시 인류가 모든 것이 부족한 초원에서 살 때는 기름진 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풍족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먹거리들이 몸에 해로운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에 맞추어 우리의 삶과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즉, '기술과 문화의 공진화'가 필요합니다.

더 알아보기 1 생각하는 로봇과 친구가 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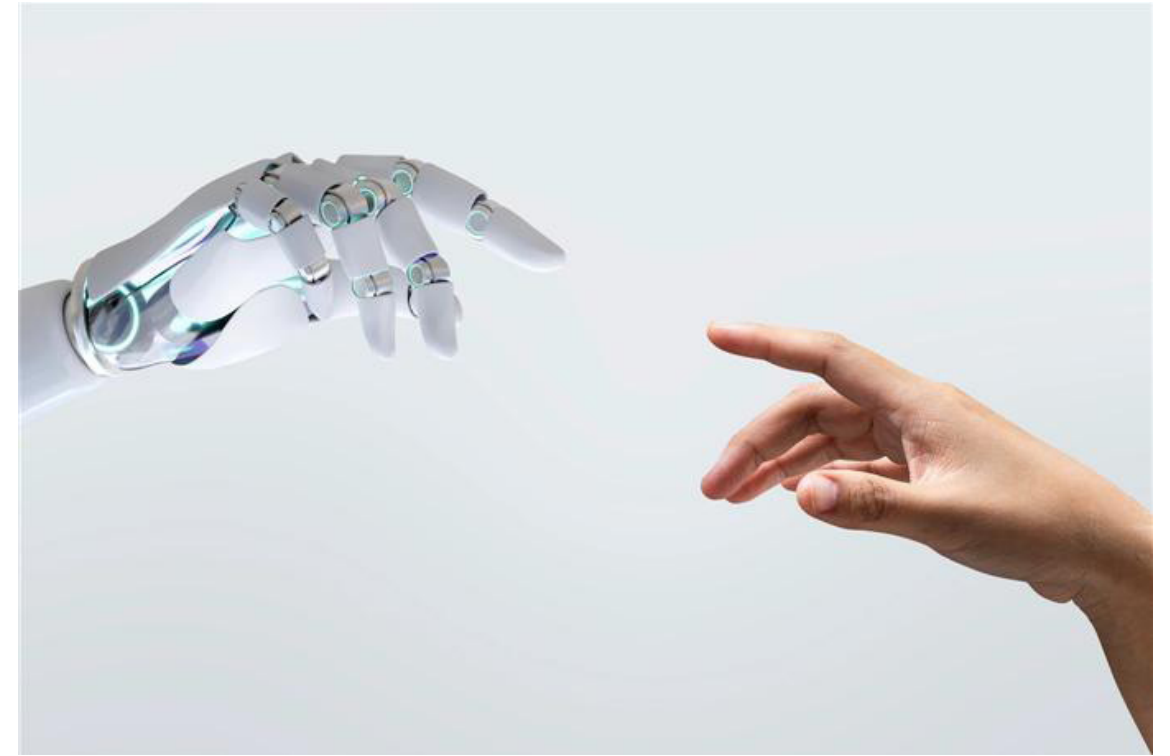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일상의 모습을 담은 천선란 소설가의 '천 개의 파랑'이라는 책에서는 멀지 않은 미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무례한 손님에게도 한결같은 '베티' 로봇은 매해 최저 시급이 올라가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 로봇 '스트린'은 환경미화원을 대신하여 길거리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구조용 로봇 '다르파'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구조활동을 척척 해냅니다.



Designed by pch.vector, 프리픽, freepik.com

경마 시합에서도 사람보다 가볍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로봇 기수 '콜리'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경마용 기수로 만들어진 로봇 콜리는 파란 하늘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고, 인간보다 더 풍부한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콜리는 세심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이에 반해 콜리 주변 사람들은 서툴고 미숙한 인간 관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로봇 기수는 말에서 떨어져 부서지면 폐기처분됨에도, 콜리는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의 경주마를 살립니다. 콜리는 자신의 결정이 오작동이 아님을 확신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경주마에게 자유와 행복감을 안겨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스스로에게도 놀랍니다. 여러분은 콜리와 같이 생각하는 로봇과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02 / 의지적 진화,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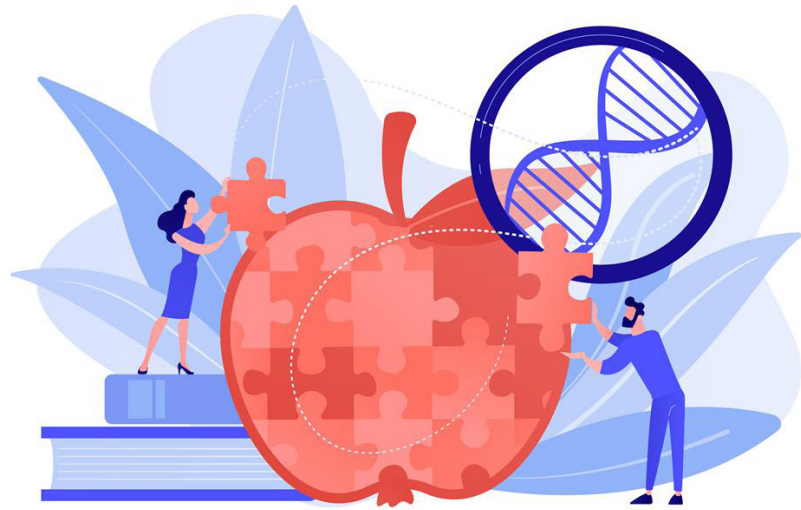


Designed by Rawpixel.com, 프리픽, freepik.com

인류는 기술과 문화 발전에 맞추어 우리 안의 수렵·채집인의 욕망과 바람을 끊임없이 길들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할까요?

인류는 나아가야 할 방향대로 자신의 사회와 문명을 발전 시키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지적 진화'라고 해요. 생명공학과 나노공학은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바꾸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발전하는 인류의 기술과 문화 발전에 맞추어 나아가 합니다. 나아가, 디지털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해볼 때, 변화하는 시대에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더 알아보기 2 유전자 변형생물(GMO)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따라 GMO 식물과 동물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Designed by vectorjuice, 프리픽, freepik.com

우리가 먹는 벼는 본래 시베리아와 같이 추운 지역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전자를 벼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이렇게 생명공학기술로 원래는 갖고 있지 않은 특성을 의도적으로 갖게 만든 것이 유전자 변형 생물,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입니다. 유전자 변형생물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 본 추위에 강한 벼 이외에도 옥수수, 제초제에 강한 콩 등과 같이 우리가 주로 먹는 곡물이나 채소 중에도 유전자 변형 작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GMO에 대해 그린피스 등 일부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과학적으로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들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섞일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이러한 작물들이 자연 상태의 다른 동,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GMO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충이나 잡초, 추위에 잘 견디는 특성을 지닌 GMO는 농약이나 제초제, 보일러 등을 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우리 삶에 이로울 것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기술일까요? 이를 생명체 모두에게 유익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식작업 미래에 갖추어야 할 능력

중앙일보와 현대차정몽구재단이 2018년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창의력(29), 인성(28), 융복합 능력(26), 협업 역량(26), 커뮤니케이션(18) 등이 중요한 역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토의를 통하여 순위를 정해 봅시다.

명사 100인이 꼽은 미래 역량 (중복 응답 포함)			
창의력	29명	감수성	7명
인성	28명	문제 해결 능력	6명
융복합 능력	26명	대인관계 능력	6명
협업 역량	26명	행복 능력	5명
커뮤니케이션 능력	18명	공동체 의식	4명
유연성	9명	비판적 사고	4명
컴퓨팅	9명	지혜	4명
공감 능력	7명	직관	3명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사회 필요한 능력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그 밖에 순위 :

〈참고자료〉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2016), GMO에 대해서 과학이 추구해야 할 것은 '위험한 도박' 아닌 '확실성', 2016. 10.10. 그린피스 공식 홈페이지, www.greenpeace.org/korea/update/5726/blog-health-gmo-scientific-evidence-needed
- 로버트 로이드, 피터 리처슨 (Robert Boyd, Peter J. Richerson)(2009), 유전자만이 아니다, 김준홍 옮김, 이음.
- 매일신문(2022), "[학부모와 함께 나누고픈 복&독]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 2020. 2.1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20917455030880>
- 이정동, 권혁주, 김기현, 장대익 외(2019), 공존과 지속, 민음사.
- 중앙일보(2018), "스마트시대 기업들은 스펙 대신 공감 능력 있는 인재 원한다.", 2018.1.15. <https://joongang.co.kr/article/22285976>
- 조선일보(2020), "극지연, 남극식물 유전자로 추위에 강한 벼 개발", 2020.1.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7/2020010702042.html
- 천선란(2020), 천개의 파랑, 허블.
- KBS(2022), "독일, 아픈 학생 대신해 등교하는 아바타 로봇", 2022. 2.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0595&ref=A>

헌법적 공동체

- 공감을 넘어 공적 감정으로

[학습 목표]

- 공적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이것이 필요한 까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헌법적 인류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다.

'세 살 짜리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에게'¹⁸⁾

서해성

Designed by pikisuperstar, 프리픽, www.freepik.com

바닷가 모래밭에 뺨을 묻은 채 / 듣고 있더구나. /
엄마, 저 파도를 잘 건너갔나요?

지중해 물결 끝 옷자락인 양 쥔 채 / 묻고 있더구나. /
아빠, 저 바다 건너에는 무슨 꽃이 피나요?

너를 잊은 모든 곳에 / 국경이 있었다. /
총구 달린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었다.

아일란 쿠르디 / 뺨에서 모래를 털어내면서 또 너는 묻겠지.
아직 총소리는 그치지 않았나요?

바닷가 모래밭에 이 밤도 뺨을 묻은 채 / 듣고 있더구나.
엄마, 저 땅은 잘 건너갔나요?

여러분은 이 시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18) <고발뉴스(2015), "[거리의 시/서해성] 세 살짜리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에게", 2015.9.9. 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95> 참조.

[단원 학습 안내]

이 단원에서는 유전자-문화 공진화와 기술과 문화 공진화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01 / 공적 감정

공감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요, 감정은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또는 집단 속의 역할을 통해 스스로를 파악하는 심리-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서 맞게 반응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따르도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공감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비교적 쉽게 공감을 하는데요, 반대로 우리와 크게 관계가 없거나 생각이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거나 심지어 혐오와 배제의 표현을 하기까지 합니다.



공적 감정은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Image by freepik, 프리픽, freepik.com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 혐오하고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대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을 조건 없이 돕고자 하는 이타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법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이것을 '공적 감정(Public Emo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누스바움은 우리가 품위 있고 인간미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적 감정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이를 갖추게 되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싸우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적 감정을 갖춘 구성원들이 많아질수록 대화와 타협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과 제도들도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요. 이러한 공적 감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1 코로나로 세계 빈곤 아동 급격히 증가



Designed by vectorjuice, 프리픽, freepik.com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18세 미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창립 75주년 보고서에서 코로나가 어린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빈곤에 시달리는 아동은 1초당 1.8명꼴로 늘어나 2020년 이후 약 1억 명 증가하여 총 1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약 5천만 명은 영양실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중증 영양실조를 겪는 아동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2020년 기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아동은 코로나 전에 비해 약 400만 명 늘어나 약 2,300만 명에 이르며, 생존을 위해 약 800만 명의 아동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 정부, 국제 사회, 각 기관이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02 헌법적 인류 공동체

앞서 사회에 중요한 규범과 제도의 출발점인 공적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규범과 제도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 윤리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집단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정체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사회 규범은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의 토대를 이루는 자유, 정의, 평등의 정신은 세상을 보다 건강하고 평화롭게 가꾸어 가도록 합니다.

Designed by Freepik, 프리픽, freepik.com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인간 존엄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이기에,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할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헌법정신이 꼭 한 나라 안에서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국가에만 충성하는 애국심을 넘어 인류 전체를 헌법의 정신으로 묶는 헌법적 인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헌법적 애국심은 헌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살며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려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헌법적 인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유, 정의, 평등과 같은 헌법의 기본 가치에 근거한 헌법적 애국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2 코로나로 세계 빈곤 아동 급격히 증가

의사인 이태석 신부는 2001년 자청해서 내전 중인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다치고, 병에 걸리고, 희망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의술과 예술,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어요. 전쟁과 가난으로 웃음을 잃은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의술을 베풀어 몸이 아픈 사람을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에서 행복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기쁨은 순수한 마음으로 톤즈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나눔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 즉 되돌아오는 기쁨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태석 신부는 48세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가 수단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사랑과 헌신을 기리며 그를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태석 신부의 헌신과 사랑은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영화에서는 이태석 신부가 톤즈의 배고픈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 사흘 밤낮을 걸어서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 등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의 선한 시선과 해맑은 미소를 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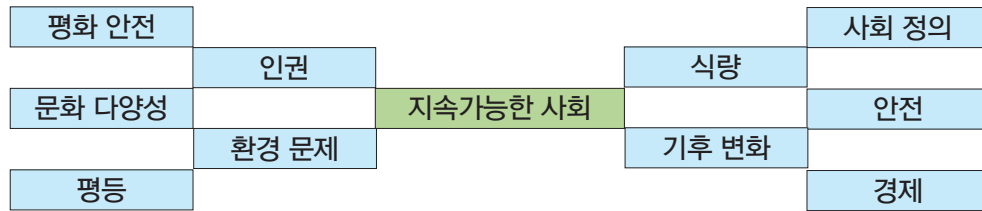


<울지마 톤즈> 영화 포스터

By KBS한국방송 at 다음 영화, movie.daum.net/movieDb/crew?movieId=58808

지식작업 세상을 발전시킬 공적 감정 기르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류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이것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공적 감정에 대해 모둠별로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예 : 정의감, 약자에 대한 배려심, 협동심 등)

<참고자료>

마사 누스바움(2019), 정치적 감정, 박용준 옮김, 글항아리.
 고발뉴스(2015), "[거리의시/서해성] 세 살짜리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에게", 2015.9.9. 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95
 어린이조선일보(2021), "세계 빈곤 어린이, 2년 새 '1억명' 증가", 2021.12.13. https://bit.ly/3ao7ydT
 연합뉴스(2021), 유니세프, "코로나 후 전세계 빈곤아동 초당 1.8명 늘어", 2021.12.9.
 이태석재단, "신부님을 기억하며", 이태석재단 공식홈페이지, www.smiletonj.org/main/leetaeseok.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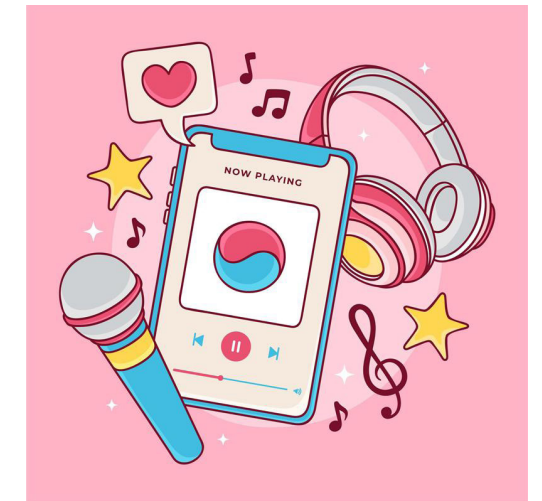
소농사회와 대한민국 헌법정신

- 세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

[학습 목표]

- 소농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헌법 전문(前文)에 담겨 있는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다.

2000년대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음악이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이른바 '한류(韓流)'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본격적으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헌법의 토대를 이루는 자유, 정의, 평등의 정신은 세상을 보다 건강하고 평화롭게 가꾸어 가도록 합니다.
 Designed by Freepik, 프리픽, freepik.com

대표적으로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영화 배우 이병헌과 비는 미국 할리우드에 진출하여 여러 작품에 출연하여 이름을 알렸습니다. 한편 SNS를 통해 해외에서 더 인기가 높았던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은 오늘날 다른 나라의 유명한 팝가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슈퍼스타로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2020년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영화 최초의 작품상 등 총 4개 부문을 수상했고, 이후 나온 '오징어게임'과 한국인의 삶과 역사를 다룬 '미나리'와 '파친코' 등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50년, 6·25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세기 만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었고, 이를 발판으로 전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제에 맞서 나라의 독립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조상들이 꿈꾸었던 '문화보국(文化保國 : 문화로 나라를 지킴)'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단원 학습 안내]

이 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된 소농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01 /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 헌법적 인류 공동체의 롤 모델

21세기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 평화를 바탕으로 세계의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재를 넘어서 자유, 정의, 인권, 평등과 같은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민주 국가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CC2.0 image by Carmine.shot, 플리커, <https://bit.ly/3l19gsS>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모습

CC4.0 image by Minseong Kim, 위키미디어 커먼스, <https://bit.ly/3pSdx1m>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서구가 먼저 이룬 경제와 민주주의 모델을 잘 따라온 추격자일 뿐, 세계 문명을 이끌 선도자는 아니라고 깎아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일군 정칙과 근면함,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서구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입니다. 우리 정신문화에 담긴 가치들이 여러 나라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가운데 발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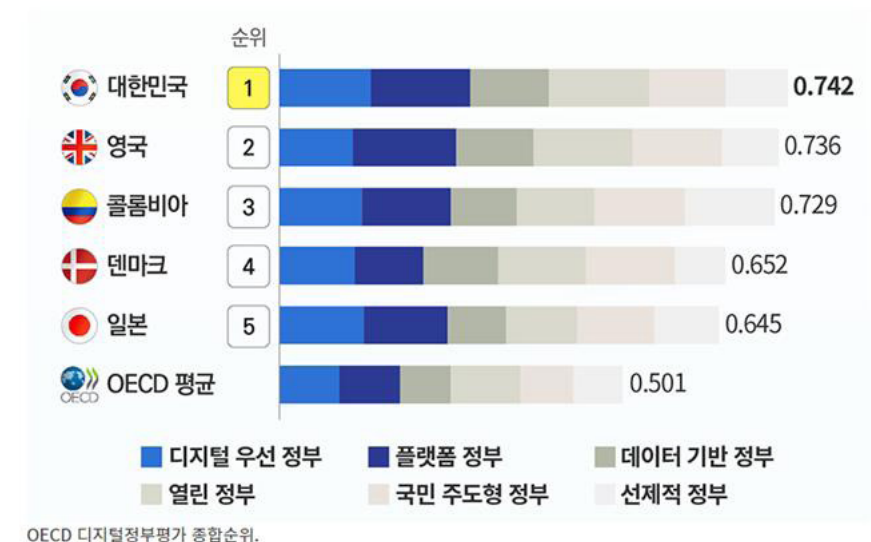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밑바탕에는 600년이 넘도록 조선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끈 성리학 정신이 있습니다. 성리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저마다 올곧고 바른 사람이 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평등하며 열심히 노력하여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추구한 성리학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정과 정의의 밑바탕이 됩니다.

나아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생활의 터전을 갖춘 소농(小農)들이 중심이 된 경제 제도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소농들은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지었지만,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글을 읽으며 마음을 수양하며 국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더 알아보기 한국, OECD 첫 '디지털 정부 평가'서 종합 1위 차지

우리나라는 2020년 처음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디지털 우선정부, 플랫폼 정부 등 6가지 평가항목을 측정하여 각 나라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 정부 성숙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Source from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 OECD 첫 '디지털 정부 평가'서 종합 1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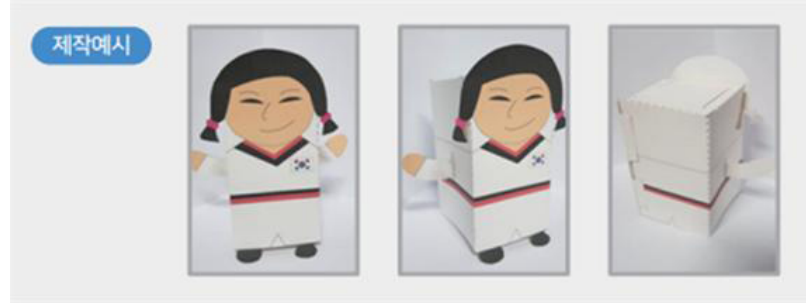
<https://bit.ly/3NZY1WW>

우리나라를 대하는 국제 사회의 자세도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초대되었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우리나라의 국제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지식작업 1 나의 꿈과 우리나라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

여러분의 미래 직업과 진로를 생각해 본 다음, 그 모습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주세요. 모듈별로 자신의 미래 모습과 이것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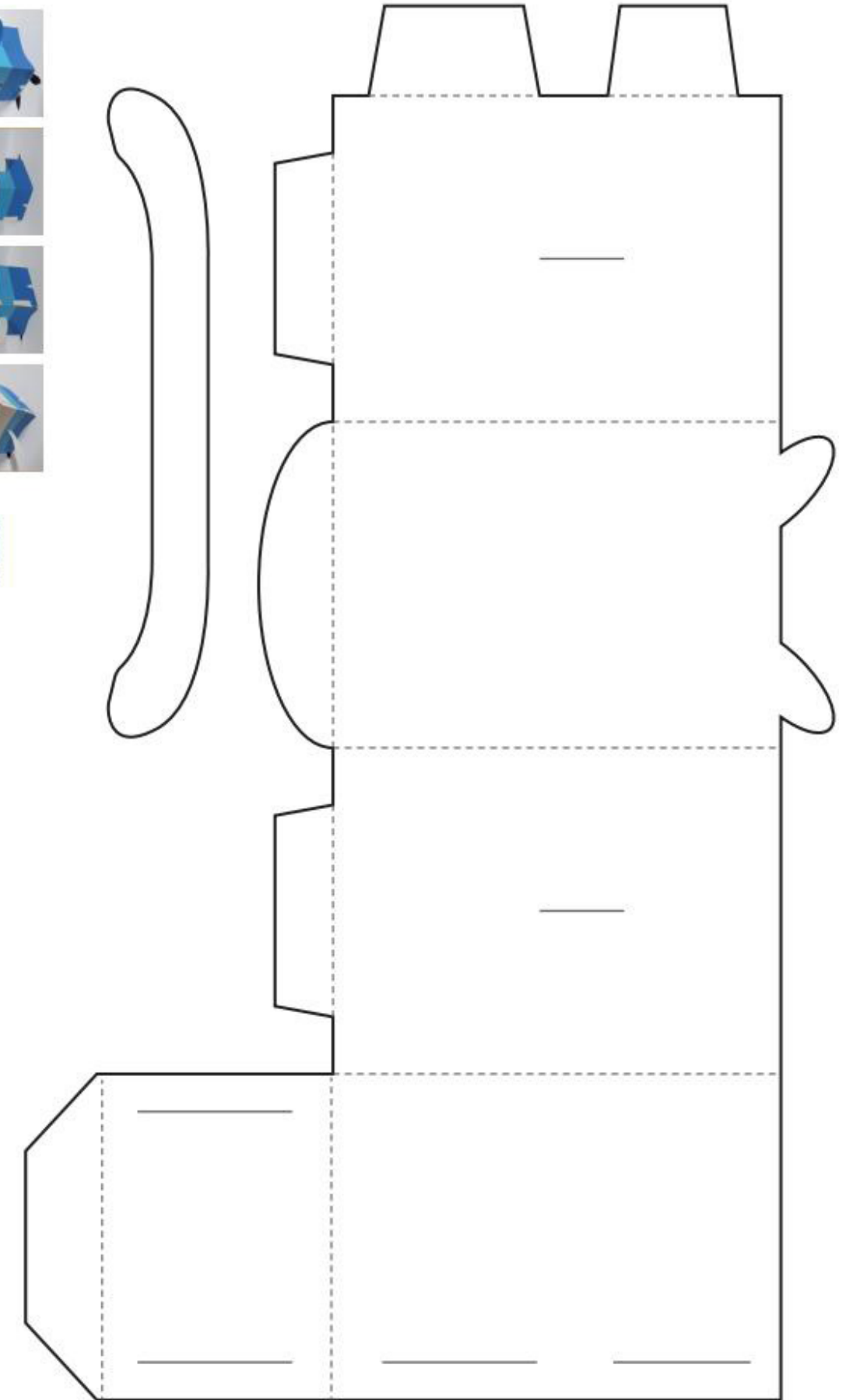
<활동 안내>

- ① 미래 나의 직업과 진로를 생각합니다.
- ② 미니어처 활동지에 미래 나의 모습에 어울리는 표정, 직업과 관련된 옷을 그립니다.
- ③ 활동지를 잘라서 미니어처를 완성합니다.
- ④ 미래의 나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자르는 선
접는 선

나의 모습 인형 만들기



02 / 인류 평화와 헌법정신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 평화를 지향하는 전통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발전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헌법에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가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며, 이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CC4.0 Image by Reo1905, 위키미디어 커먼스,
<https://bit.ly/3wPUK8Z>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인간 존엄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CC2.0 image by Republic of Korea, 플리커, <https://bit.ly/3wTCsCe>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Image by jcomp, 프리픽, [freepik.com](https://bit.ly/3wTCsCe)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한다.

CC2.0 image by Republic of Korea, 플리커, <https://bit.ly/38LeKQX>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CC2.0 image by Antony Surace, 플리커, <https://bit.ly/3MTJm1l>



국가의 일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CC0 image by YunHo Lee, 플리커, <https://bit.ly/38JedyZ>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CC2.0 image By Quinn Dombrowski, 플리커, <https://bit.ly/3LOdolo>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 주권,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 국제 평화, 평화통일 추구 등을 기본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우리 반 헌법을 만들어 봅시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전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 OECD 첫 '디지털 정부 평가'서 종합 1위 차지", 2020.10.16. <https://bit.ly/3NZYtWW>

미야지마 히로시(2021), 한중일비교통사, 박은영 옮김, 너머북스.

심용환(2017), 헌법의 상상력, 사계절.

이한태(2013), 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 서울법학, 20(3), 1p-36p.

정극원(2012), 헌법상 평화조항에 관한 일고찰, 세계헌법연구, 18(3), 119p-138p.

21세기 평화를 위한 인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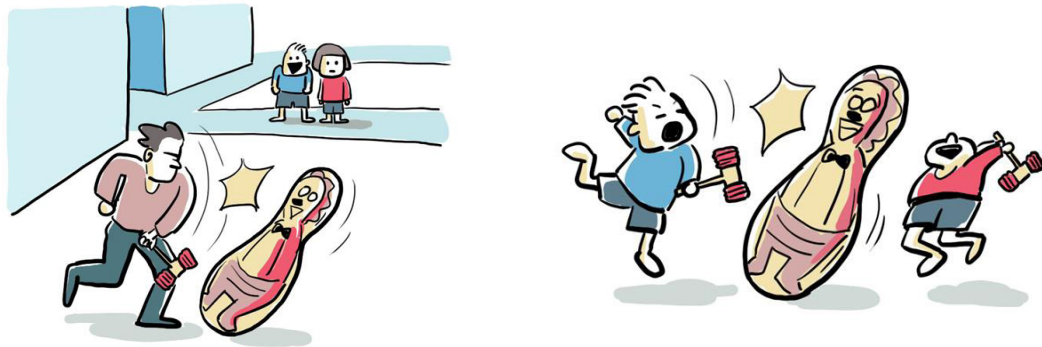
- 문화 학습자를 넘어 지식 작업자로

[학습 목표]

- 21세기 평화를 위한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말할 수 있다.
- 지식 작업자에 대해 알아보고 지식 작업자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왜 과잉 모방을 할까?”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 앨버트 반두라는 보보인형 실험으로 ‘관찰을 통한 행동학습’을 증명하였습니다. 실험에서 아이들은 한 사람씩 실험실 안에 들어가요. 실험실 안에는 장난감들과 어른(연구원) 한 명이 기다리고 있고, 아이는 아이가 노는 구역에서, 어른은 어른이 노는 구역에서 각자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의 구역에만 있고 아이의 구역에는 없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바로 보보인형이지요. 보보인형은 아래에 무게추가 달린 풍선 인형으로, 아무리 넘어뜨려도 오뎅이 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아이들에게 어른이 장난감 망치로 보보인형을 신나게 때리는 것을 10분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다른 장소에서 장난감 망치와 보보인형이 주어지자 그 어른과 똑같이 인형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인형을 장난감 망치로 때리는 것을 관찰한 아이들은(왼쪽)
이후에 그 인형을 장난감 망치로 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오른쪽)

Designed by 조진호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남들이 하기에 따라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등 유행을 생각해 보세요. 꼭 남들처럼 차림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도, 남들처럼 하려고 은연중에 애를 쓰게 되지 않던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단원 학습 안내]

이 장에서는 21세기 평화를 위한 인재상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 학습자를 넘어서 지식 작업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할지 알아봅니다.

01 “문화도 유전된다” 모방자 이론

모방자 이론가인 수전 블랙모어는 “수백만 년 전에 인류가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한 데는 흉내내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동안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흉내 내어 왔으며, 이를 통해 진화 과정에서 흉내 내는 사람들이 체득한 장점들이 우리 문화 속에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흉내내기는 큰 기억용량과 빠른 정보처리 능력을 필요로 하고, 이것이 두뇌가 폭발적으로 커지게 된 원인이 되었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나 열매를 먹어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를 먹고 괜찮았던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인류는 생존에 필요한 기술과 행동을 보고 따라하고, 그 경험들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면서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른 사람을 흉내 내고 모방하는 것들이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하기는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방하기 보다는 기존의 단점이나 약점을 고쳐서 새롭게 보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오리고, 만들고, 붙이고, 그리는 등의 여러 가지 표현 능력은 모방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Image by macrovector, 프리픽, freepik.com

그동안 여러분이 경험했던 따라하기들을 함께 나누어 볼까요?

그렇게 하는 것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었나요?

맹자를 바르게 키우고자 세 번을 이사한 맹자의 어머니

맹자는 공자가 죽은 지 100년쯤 뒤인 전국 시대에 산둥성 에서 태어나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킨 유학자입니다. 전국 시대는 진, 초, 연, 제, 한, 위, 조 등 일곱 나라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며 전쟁으로 날을 세우던 기간이었어요.

맹자 어머니 장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가난한 살림살이를 꾸려 가면서도, 어린 맹자를 사람답게 반듯하게 키우려는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가난하여 공동묘지 가까이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공동묘지에서 장례 치르는 것만 보고 들으며 지내던 어린 맹자는 상여를 메는 흉내, 무덤을 만드는 흉내, 곡을 하는 흉내, 제사 지내는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시장 가까이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린 맹자는 손님 부르는 소리, 손님과 흥정하는 소리, 돈을 주고 받는 흉내, 때로는 손님을 골라 가며 바가지를 씌우고 갈취하는 못된 장사꾼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어머니는 이곳도 맹자에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또 다시 요즘의 학교라 할 수 있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어린 맹자는 어깨 너머로 들은 글을 읊조리고, 예를 갖추는 흉내를 내며 놀았고, 이를 본 어머니는 그곳에서 맹자를 길렀습니다. 후에 맹자는 큰 학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맹자는 공동묘지 근처, 시장,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 내었습니다. 모방은 결국 모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으로 '모델링'이라고도 하고, 관찰한 것을 학습한다고 하여 '관찰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관찰하고 모방할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19) <말모이(2017), 맹모삼천지교, 말모이넷, <https://www.malmoi.net/2017/07/gosasungo-maengmo-samchon-zigyo.html>>와 <김세중(2022), 처음 시작하는 맹자, 스타북스> 참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바꾸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의 생활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상식과 비논리 역시 늘어나는 복잡한 세상, 불확실한 미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문화 학습자를 넘어 '지식 작업자(knowledge Worker)²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피터 드러커의 저서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는 지식 작업자를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가진 21세기의 가치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창의력이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경쟁력으로 중요해지면서 많은 조직이나 단체, 기업의 미래 가치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의력은 기발하지만 엉뚱한 발상만 큼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유연한 사고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창의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도 길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통찰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류 공동체를 이루려면 지식 작업자는 끊임없는 학습과 혁신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과 공감하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다가갈 때, 제대로 학습하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사냥과 채집을 위한 작은 무리에서 출발한 인류는, 마을과 국가를 이루는 단계를 지나 이제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인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풍요롭게 지내며 공존과 지속을 이룰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식 작업자로서 우리는 이 물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고민해야 합니다

20) 본 교재에서는 Knowledge Worker를 지식 작업자로 번역하였습니다. 다른 저술서에서는 지식근로자, 지식 노동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4C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창의력(Creativity),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의사 소통 능력(Communication), 협업 능력(Collaboration)에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을 더한 것입니다. 여기에 호기심(Curiosity)을 더해 6C를 말하기도 합니다. 6C 중에서도 창의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6C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각자의 필요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만드는 방법을 타인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더욱 발전시키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간을 흔히 '도구의 인간', 즉 호모 파베르(만드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도 하죠.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돌을 깎고 나무를 쪼개며 짐승을 사냥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현대인들도 끊임없이 도구를 만드는데요, 특히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캐너 등)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Fabrication) 도구인 3D프린터/레이저 기계/CNC 저작 기구 등의 도구를 활용해 더욱 값싸게, 또는 현재에 없던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메이커(Maker)라고 부릅니다. 나아가 메이커들이 그들만의 방법을 공유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선순환 구조의 흐름을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이라고 하지요.

메이커 운동의 허브 역할을 하는 테크숍(Techshop)의 공동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CEO) 마크 해치는 저서 "메이커 운동 선언"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기술을 응용해서 폭넓게 만들기를 하는 대중을 '메이커'라고 정의하고, 이 메이커들이 만드는 흐름을 메이커 운동이라고 정의합니다.

나아가 메이커 운동은 만들고(Make)→공유하고(Share)→전달하고(Give)→배우고(Learn)→장비를 준비하고(Tool up)→즐기고(Play)→참여하고(Participate)→지원하고(Support)→변화시키고(Change)의 선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함께 힘을 합쳐 협력하며 새로움에 도전하는 것은 인류를 더욱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21) <동아사이언스(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녀 교육은 어떻게?③] 그런 방식으로 창의력이 키워질까?", 2017.3.30. www.dongascience.com/news.php?idx=17387>와 <투이건설링(2017), "Maker Movement, 만들고, 공유하고, 혁신하는 오픈소스 제조 운동", 2017.6.23. www.2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429> 참조.

1. '메이크오버!' 하실게요~.

- 각자의 정면 얼굴 사진(셀카)과 평소 모습이 담긴 전신 사진(2~3장 정도)을 준비합니다.
- 평소 사진을 활동지의 'Before'에, 얼굴 사진을 활동지의 After에 붙입니다.
- 말머리표를 그려서 평소의 언어 습관을 Before 사진에 적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언어 습관을 After 사진에 적습니다.
- 패션 잡지들의 이미지를 오려 붙이는 등 활동지의 'After'를 구성하여 패션 스타일을 제안하도록 합니다.
- 완성한 메이크오버 사진을 발표하고 소감을 나눕니다.

Before	After
활동 사진들을 붙이고 각 사진마다 평소의 언어 표현들을 사용하여 말머리를 달아 주세요.	얼굴 사진을 붙이고 바른 언어 표현을 하는 말머리를 달아 주세요. 그리고 패션 잡지나 신문 등에서 원하는 의상을 사용하여 꾸며 주세요.

2.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과거, 혹은 현재 내가 칭찬받았거나 행복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관심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3. 나와 너를 위하여!

- 내가 '또 다른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1. 업사이클링이란?

- 각자 휴대폰으로 업사이클링의 개념과 의미를 검색합니다.
-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자유롭게 말해 보세요..
- 진행자가 PPT, 유인물 등으로 업사이클링의 개념과 의미를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2. 살리고~ 살리고~

- 준비물 : 컴퓨터, 빔프로젝터, 안 입는 티셔츠, 빈 페트병, 가위, 리본끈, 비닐(예. 크린백) 등
- 활동 자료의 링크 등 인터넷 자료 화면을 보며 티셔츠나 페트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을 실시해 봅니다.
- 주변에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업사이클링 할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 활동하기 전에는요.

- 각자 집에서 안 입는 티셔츠, 빈 페트병 등을 가져오세요.
- 업사이클링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환경오염, 동물보호와 같은 환경 문제와 활동을 연결시키며 작업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김세중(2022), 처음 시작하는 맹자, 스타북스

김상희, 김희숙, 이지연, 최지연 외(2021), 최신 인간 성장과 발달, 포널스출판사.

김승, 강지훈, 유정윤, 한양대 사회혁신센터, 성기철(2019), 상상하고 만들고 해결하고, 미디어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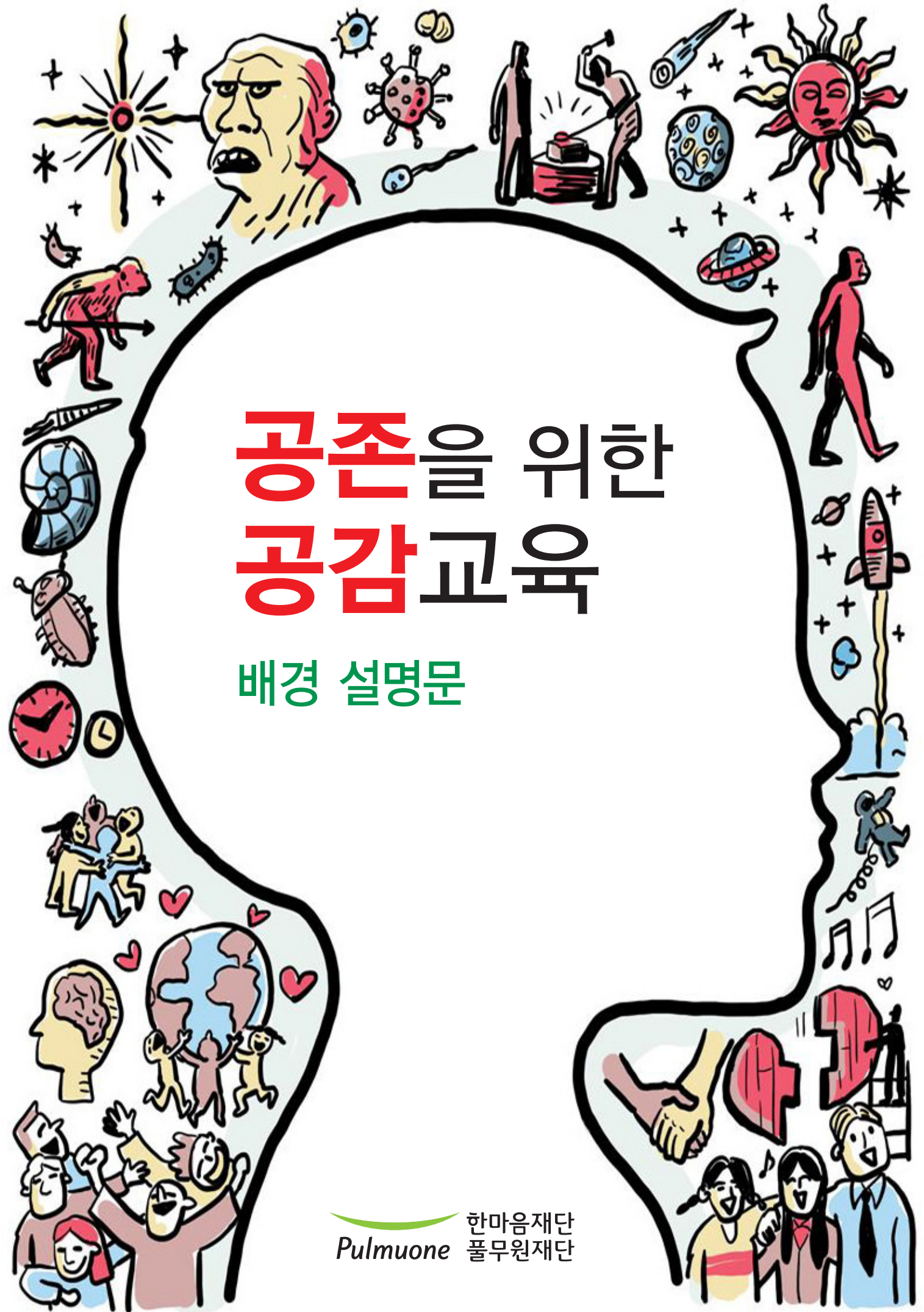
동아사이언스(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녀 교육은 어떻게?③] 그런 방식으로 창의력이 키워질까?", 2017.3.30. www.dongascience.com/news.php?id=17387

말모이(2017), 맹모삼천지교. 말모이넷, <https://www.malmoi.net/2017/07/gosasungo-maengmo-samchon-zigyo.html>

수전 블랙모어(2010), 밈(MEME), 김명남 옮김, 바다출판사.

이재규(2009), 지식근로자, 한국경제신문사.

투이컨설팅(2017), "Maker Movement, 만들고, 공유하고, 혁신하는 오픈소스 제조 운동", 2017. 6. 23. www.2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429



공존을 위한 공감교육

배경 설명문

[목 차]

106p	들어가며 : 왜 새로운 평화교육인가?
109p	Chapter1.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인간 마음의 진화적 이해 1장. 초사회성, 인류 문명을 이끈다-문명의 생물학적 기초 2장. 인지혁명과 성찰하는 자의식-빅 히스토리로 살펴본 인간 정신의 뿌리 3장. 수렵·채집 시대의 저주-질투·혐오의 기원 4장. 우리는 왜 함께 있어도 싸우지 않을까?-인간 무리의 비밀, 표지
119p	Chapter2. 우리는 누구인가?-인간 마음과 도덕성의 인지과학적 이해 5장. 공감하는 존재, 인간-거울 뉴런과 마음이론 6장.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기억과 학습 7장. 뇌는 어떻게 본능을 다스릴까?-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 8장. 혐오와 편견을 이기는 생각 기술-과학적 사고와 반증 가능성
129p	Chapter3.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헌법적 공동체로 가꾸는 인류의 공존과 지속 9장. 기술과 문화 공진화-21세기 문명 이해 10장. 헌법적 공동체-공감을 넘어 공적 감정으로 11장. 소농사회와 대한민국 헌법정신-세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 12장. 21세기 평화를 위한 인재상-문화 학습자를 넘어 지식 작업자로
138p	맺는말 : 과학적 사고, 성찰하는 자의식, 공적 감정-평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



왜 새로운 평화교육인가?

“스마트폰은 우리를 평화롭게 할까?”

인류는 불을 사용하면서 여느 동물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위협에서 안전해지고, 음식을 익혀 먹게 되면서 몸도 튼실해져 더 오래 살게 되었지요. 200여 년 전에 등장한 전기도 그랬습니다. 전구의 등장은 어둠을 몰아냈고, 청소기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술한 발명품들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2008년에 등장한 스마트폰은 10여 년 만에 불과 전기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기계로 우리는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바로 찾아내게 되었지요. SNS와 댓글 등을 통해, 평생 만나기 힘든 수많은 이들과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모으기도 합니다. 상대를 잘 모를 때는, 나아가 서로 대화하지 않을 때는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쉽지요. 이 점에서 스마트폰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없앨 정말 좋은 수단이라 할 만합니다. 누구와도 쉽게 말문을 늘 수 있는 데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현실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갈등을 줄이며 평화로운 세상을 이끌고 있을까요?

“기술 발전이 평화를 가져다줄까?”

이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혐오와 분쟁, 모욕과 공격으로 넘쳐나니까요. 오히려 사람들 사이를 더 거칠게 만드는 듯 싶습니다. 인터넷 검색엔진과 동영상 프로그램들은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계속 보여주어 생각의 폭을 좁여 놓곤 하는데요, SNS 역시 나와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도록 만듭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 사이는 더 갈가리 찢어지며 서로에 대한 편견 역시 더더욱 심해지는 듯 싶어요. 이해와 타협보다는 오해와 다툼이, 평화보다는 전쟁이 우리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왜 생활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드는 기술이 계속 등장하는데도 우리는 갈등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장을 한 구석기인”

기술은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 발명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200년 남짓 한 기간에 인류의 삶은 극적으로 달라지지요. 스마트폰 역시 10여 년 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울 만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과 정신은 어떤가요? 6만 년 전 수렵·채집 시대의 인류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몸과 두뇌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우

리는 ‘양복을 입은 구석기인들’인 셈입니다. 과학기술이 급하게 발전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초원을 누비며 사냥하며 살아가는 구석기인들의 몸과 마음을 갖춘 채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평화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생물학, 인류학, 유전공학 등의 발전은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지과학의 발전은 두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상황마다 왜 그렇게 느끼고 결정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와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면 안전하게 차를 몰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떻게 진화하여 지금에 이르렀고, 마음을 꾸리는 두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안다면, 사람들의 심정을 잘 헤아리게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서로 부딪히는 상황 역시 많이 줄어들 겁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능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나아가 지구상의 동식물은 오랜 세월을 걸쳐 진화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인류는 스스로 어떻게 진화해 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BNR이라 부르는 생명공학(Biology), 나노테크놀로지(Nanotechnology), 로봇학(Robotics)의 기술을 통해서지요. 하지만 인류가 스스로를 바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우리 문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람직한 사회, 평화로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목표가 없이 무작정 달릴 수는 없으니까요. 먼저 우리는 수렵·채집 시대의 몸과 정신을 지닌 우리 스스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두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해야겠지요. 그런 후 인류의 본 모습에 어울리는 평화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평화로운 인류 공동체를 이룰 진정한 품성과 자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갖춘 사람이 많아질수록 인류 사회는 진정한 평화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평화교육’을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 알아 가려 합니다.

1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 인간 마음의 진화적 이해

2부. 우리는 누구인가? - 인간 마음과 도덕성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

3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 공적 감정으로 가꾸는 인류 공동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는 화가 폴 고갱(Paul Gauguin, 1848~1903)의 그림 제목이기도 합니다. 고갱의 그림이 주는 감동과 함께, 이제 평화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Chapter 1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 인간 마음의 진화적 이해

1장. 초사회성, 인류 문명을 이끌다-문명의 생물학적 기초

2장. 인지혁명과 성찰하는 자의식-빅 히스토리로 살펴본 인간 정신의 뿌리

3장. 수렵·채집 시대의 저주-질투·혐오의 기원

4장. 우리는 왜 함께 있어도 싸우지 않을까?-인간 무리의 비밀, 표지

핵심 키워드 : #초사회성 #진사회성 #빅 히스토리 #성찰하는 자의식 #인지혁명

#구석기 시대의 저주 #다수준 선택 이론 #인간 무리 #표지

초(超) 사회성, 인류 문명을 이끌다

- 문명의 생물학적 기초

“2%의 사회성 곤충, 곤충 세계의 4분의 3을 차지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곤충의 종류는 100만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개미와 벌 등은 크게 무리를 짓지요. 그리고 마치 전체가 하나의 몸인 것처럼 집단을 이루어 힘을 합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을 ‘사회성 곤충’이라 부르곤 해요.

사회성 곤충은 전체 곤충의 종류 가운데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구상의 곤충 중에 사회성 곤충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3입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곤충의 네 마리가운데 세 마리는 사회성 곤충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사회성 곤충이 이토록 널리 지구에 퍼질 수 있었을까요?

“진사회성, 집단에 헌신하는 무리가 강하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 여럿이 뭉쳐서 사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두가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작정으로 전체를 위해 매달린다면 어떨까요? 자기만 챙기려는 자들은 이런 강력한 집단에 상대가 안 되겠지요. 사회성 곤충들은 집단 전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곤 합니다. 이런 성질을 생물학자들은 ‘진사회성(eusociality)’라고 부르는데요, 진사회성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진사회성을 갖춘 생명은 등지를 짓고 함께 살아갑니다. 나아가,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니더라도 기꺼이 보살피며 함께 키우는데요, 알만 낳는 여왕개미, 일만 하는 일개미, 무리를 지키는 병정개미 식으로 각자의 역할이 제각각 나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위기에 닥치면 기꺼이 목숨을 던져 집단 전체를 지키려 하지요.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과감히 적을 공격하는 용기는 어디서 생겨날까요? 사회성 곤충은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집단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마치 인간 두뇌나 창자에서 호르몬을 내보내면 우리의 심장 뛰는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호흡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단 전체가 똑같은 페로몬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 초사회성을 갖추다”

진사회성을 갖춘 생명체는 사회성 곤충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인류 역시 ‘진사회성’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지요. 국가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소방관이나 경찰관, 군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주변에서, 아니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우리는 내 가족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 나와 별 상관은 없지만 ‘단지 돕고 싶은 심정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며 손해를 무릅쓰려는 모습을 심심찮게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화학 물질에 따라, 주어진 본능대로 무작정 전체를 위해 자기를 내던지는 않습니다. 주변과 감정을 나누고 생각하며 무엇이 옳은지, 집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자신보다 전체를 위해 움직이곤 하지요. 이 점에서 인간이 전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진사회성을 넘어서는데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특징을 ‘초사회성(supersociality)’이라 부르기도 해요.

초사회성이야말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협력하며 평화를 가꾸려고 하는 노력의 뿌리라 할 만합니다. 초사회성은 어느 한 순간에 생겨나지 않았습니. 이 또한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결과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초사회성을 갖추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지혁명과 성찰하는 자의식

- 빅 히스토리로 살펴본 인간 정신의 뿌리

“빅 히스토리, 인류는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는 99.4%가 똑같다고 합니다. 유전자로만 보면 오랑우탄과 침팬지보다, 인간과 침팬지가 더 가깝다고 해요. 하지만 침팬지는 수백만 년이 흘러서도 여전히 자연 속에서 작은 무리를 짓고 살아갑니다. 반면 인간은 70억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며 지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가 이토록 크게 벌어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인류가 어떻게 문화를 가꾸어 왔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반면 ‘빅 히스토리(Big History)’는 생명체 전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나아가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고 지구가 지금의 모습까지 오는 데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탐구합니다. 이에 따르면 인류는 45억 년 전 만들어진 지구에서, 38억 년 전에 태어난 생명체에서 비롯된, 600만 년 전 출현한 사람아 족의 후손이에요. 엄청나지요?

“성찰하는 자의식의 출현”

그런데 인류의 진화는 문화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인류는 어느 순간 불을 사용하면서 턱과 이빨이 작아졌어요. 익히면 고기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 큰 턱과 치아가 필요 없어졌겠죠. 그렇게 늘어난 공간만큼 두뇌가 커졌습니다. 나아가, 소화를 더 쉽게 할 수 있었기에 장의 길이도 점점 짧아졌지요. 그렇다면 커진 두뇌와 음식을 소화하는데 드는 에너지를 아낀 것으로 인류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7만 년 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는 토바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무려 2800제곱킬로미터의 화산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휩싸였고, 지구 적도 북쪽의 기온은 섭씨 10도로 추워졌어요. 대부분 인류는 이때 죽음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화산재가 덜 미친 아프리카 부근의 인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 이때 인류에게 ‘인지혁명’이 일어났지요.

인간의 커다란 두뇌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살아남기가 더 쉽지요. 하지만 서로 마음을 살피며 협력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읽는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커다란 두뇌로 “만약 내가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행동을 살피며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자의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속한 집단이 잘되게 하여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따져 봐야 하지요. 이를 ‘성찰’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며 전체를 위해 삶을 꾸리도록 만드는 능력이 ‘성찰하는 자의식’입니다.

“인지혁명,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열리다”

이런 ‘성찰하는 자의식’은 6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인 우리 인류에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아가, 인류는 문화의 큰 발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나누고, 도구를 사용하며 모두가 좋아할 만한 벽화나 장식품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지능이 크게 자라나는 인지혁명을 이루어 낸 것이지요. 성찰하는 자의식이 이끈 인지혁명을 통해, 인류는 침팬지를 뛰어넘어 사회를 이루며 문화를 키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때문에 골칫거리를 안게 되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도 인간 사회를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곤 합니다.

수렵·채집 시대의 저주

- 질투·혐오의 기원

“인류 오랜 진화를 1년으로 보자면……”

인류가 지금의 모습처럼 진화하는 데는 250만 년이 걸렸다고 해요. 학자들은 이 세월 동안의 변화를 1년 달력에 빗대어 설명하곤 합니다. 인간 문명이 동물을 길들여 가축으로 만들었던 시기는 12월 31일 오전 6시쯤입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쯤 도시 문명이 생겨났고, 현대 문명사회를 만든 산업화는 12월 31일 오후 11시 40분쯤에 시작된 셈이라고 해요.

기술과 문화는 빠르게 발전하지만, 진화는 매우 더딘 속도로 이루어지지요, 우리의 몸과 정신은 구석기 시대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매우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이 때문에 인간 사회에는 여러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인간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수렵·채집 시대의 저주”

사냥은 여럿이 무리를 지어 할 때가 안전하고 성공하기도 쉽지요. 그래서 수렵·채집 시대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만약 미움을 사서 집단 바깥으로 밀려난다면 어떨까요? 힘센 침팬지라면 혼자서도 괜찮겠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 장에서 설명했듯) 인지혁명을 통해 ‘성찰하는 자의식’을 갖게 된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이 무리 안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보다 뛰어나면 어떨까요? 이런 이들이 집단에서 많아진다면요? 결국 나는 가치 없는 부류로 무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수렵·채집 시대 사람들은 무리 안에서 나보다 다른 이들이 못한 존재가 되게끔 괴롭히거나 험담 등으로 안 좋은 소문을 내기도 했어요.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멸시하고 혐오하면서 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과시하기도 하고요. 나보다 못한 자들이 많아야 나의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요.

이렇듯 인류는 옛날 옛적 무리 지어 사냥하며 살던 시대의 마음을 여전히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한 갈등과 다툼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 같은 생물학자는 인류가 여전히 ‘수렵·채집 시대의 저주’에 빠져 있다며 한숨을 쉽니다.

“다수준 선택 이론”

그렇다면 수렵·채집 시대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전쟁은 이 물음에 좋은 해답을 안기는데요, 외부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집단 안에 사람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자기만 챙기며 남들과 협력 안 하는 자들이 많은 무리는 어떨까요? 전쟁에서 줄곧 져서 빨리 죽음을 맞겠지요. 그러면 그들의 유전자가 후대에 퍼져나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전체를 위해 희생하며 힘을 합치려는 이들이 많은 집단은 어떨까요? 전쟁에서 줄곧 승리하며 오래 살아남겠지요. 그들의 유전자가 후대에 퍼져나가기도 쉽구요, 우리는 아마도 협력하며 힘을 합쳤던 이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더 큼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까닭 역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듯 싶어요.

집단 안에서의 경쟁에서는 이기적인 자들이 승리하기 쉽습니다. 반면, 집단 사이의 다툼에 서는 헌신적인 이들이 많은 집단이 이기지요. 인류 문명은 자기 이익을 크게 만들고픈 이기심과 공동체를 더 훌륭하게 만들려고 헌신하는 마음이 부딪히는 가운데 발전해 왔습니다. 이를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의 ‘다수준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렵·채집 시대의 저주에서 벗어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인류 공동체를 꾸릴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함께 있어도 싸우지 않을까?

- 인간 무리의 비밀, 표지

“인간은 어떻게 크게 무리를 지을까?”

침팬지들은 틈만 나면 서로 털을 고르며 쓰다듬어 주는 글루밍(grooming)을 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이는 상대방을 친근하고 가깝게 느낀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침팬지라 해도 하루 종일 털만 고르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침팬지의 무리는 평균적으로 50마리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100~200명, 아니 수천 명이 모여 집단을 이룹니다. 나아가 몇 천만 명이 하나가 되어 국가를 이루기도 하지요. 인류는 어떻게 이렇게 크게 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을 ‘우리’로 만드는 표지”

인간은 본능만으로 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큰 두뇌로 관계를 섬세하게 살필 줄 아는 인간은 학습을 통해 우리 편인지 누구인지를 가늠하곤 하지요. 국가 간의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 볼까요? 다른 나라와 대표팀 경기가 열릴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표지’로 하나가 됩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던 이들도 이 순간만큼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팀’이 이기기를 바라지요.

인간이 만든 집단, 즉 ‘인간 무리’는 갈등과 다툼을 잠재우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는 같은 편임을 확인시키는 표지들을 사용합니다. 고향이 같은 사람, 같은 학교 졸업생, 같은 가문의 인물 등등, 조금만 둘러보아도 우리 생활 곳곳에는 술한 표지들이 널려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사회나 국가 같은 큰 무리를 만들기 위해 종교나 사상을 표지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인류 최초의 대규모 공동체인 9000년 전에 만들어진 ‘차탈회위크(Catalhoyuk)’라는 마을 유적에서도 이미 신앙을 가졌음을 짐작할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며 다른 음식을 먹는 사람들끼리도 같은 믿음과 종교를 갖고 있을 때는 친밀함이 금방 피어오르곤 하잖아요? 나아가 각 문명에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표지’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우리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은 민

족이며 하나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데요, 이렇듯 종교나 서로가 같은 뿌리임을 알게 하는 역사 이야기들은 서로 경쟁하며 다투던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표지가 되곤 합니다.

“인류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표지는 없을까?”

하지만 표지들은 술한 혐오, 갈등, 전쟁을 낳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인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했던가요? 그냥 만났다면 참 좋은 친구가 되었을 이들을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유로 멀리했던 적은 없던가요? 나와 다른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 혹은 다른 학교 출신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했거나 따돌림당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우리에게는 모든 차별을 덮을 만한, 인류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모을만한 표지가 필요합니다. 인류 모두를 공동체, 즉 하나의 인간 무리로 만들 표지를 만들려는 노력은 문화 발전의 역사 내내 이루어져 왔지요. 하지만 이제 과학은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엮을 새로운 해안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과 여러 사회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인류를 평화로 이끌 새로운 길이 보다 분명해질 것입니다.

“인류는 왜 이리 잔인할까?”

제1·2차 세계대전은 무척 끔찍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1500만 명이,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무려 5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뿐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서로를 괴롭히며 잔인하게 죽였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이지요. 모든 생명은 살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이리면서 상대방을 잡아먹기도 해요. 하지만 인간들처럼 대규모로 상대편을 죽이지는 않아요. 도대체 인류는 왜 이리 잔인할까요? 평화를 이루려면 사람들 사이의 경쟁과 다툼을 없애버려야 할까요?

“전쟁이 문명을 풍요롭게 한다?”

하지만 인류 문명은 경쟁과 전쟁을 통해 발전해 왔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학자들은 어느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인간의 잔인함은 시간이 가면서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100여 년 전 중국 당(唐)나라에서는 안녹산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죽은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360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때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으니, 지금의 인류 규모로 본다면 이 숫자는 무려 4억 3천만 명 가까이 살해된 것에 버금간다고 해요.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전쟁들을 손꼽아 보면, 제1·2차 세계대전은 각각 9번째, 16번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예전에 벌어졌던 전쟁이 훨씬 더 잔혹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전쟁에서 사망자는 많아야 수만 명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나아가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를 만드는 데는 그 시대에 가장 새롭고 뛰어난 기술이 쓰이곤 합니다. 인류는 언제나 더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 상대를 누르기 위해 아득바득해 왔어요. 그러면서 과학기술도 덩달아 발전했습니다. 구리보다 단단한 철(鐵)로 무기를 만들게 되면서, 철로 된 농사 기구도 널리 퍼지는 식이었어요. 인터넷이나 위성항법시스템(GPS)은 현대 사회를 꾸리는 데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이들 역시 전쟁 무기를 개발하면서 세상에 널리 퍼진 기술이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쟁 덕분에 세상에 나타난 발명품들이 무척 많습니다. 옛 인류가 치열하게 다투지 않았다면 과연 ‘문명의 쌀’이라 불리는 철이 지금처럼 널리 쓰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일상을 가꾸는 데 꼭 필요한 여러 발명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이끄는 경쟁도 가능하다.”

우리의 문화도 다르지 않은데요, 상대를 이기려면 무리가 크고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짐승은 150마리를 넘어서까지 집단을 이루기 어려워요. 반면 인류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삽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운다면 과연 이렇듯 크게 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투지 않고도 서로 간의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 법과 정부 같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나아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함께 믿는 종교를 만들어 냈습니다. 정치도 평화를 위한 장치라 할 만합니다. 주먹과 칼로 대신 말로 다투며 갈등을 풀어내는 작업이 정치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속에는 악마 같은 충동도 있고 천사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잔인한 전쟁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은 평화를 이루는 데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의 선한 천사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경쟁해야 할까요?’

Chapter 2

우리는 누구인가?

- 인간 마음과 도덕성의 인지과학적 이해

5장. 공감하는 존재, 인간-거울 뉴런과 마음이론

6장.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기억과 학습

7장. 뇌는 어떻게 본능을 다스릴까?-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

8장. 혐오와 편견을 이기는 생각 기술-과학적 사고와 반증 가능성

핵심 키워드 : #거울 뉴런 #마음이론 #메타인지 #빠른 생각과_느린 생각 #과학적 사고 #반증 가능성

공감하는 존재, 인간

- 거울 뉴런과 마음이론

“인간의 두뇌는 왜 클까?”

인간의 두뇌는 1.5kg 남짓입니다. 몸무게에서 2%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두뇌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에너지의 약 20~25%를 쓴다고 하네요. 게다가 사람의 두뇌는 인간 몸에 견주어서는 무척 큰 편이지요, 고래와 코끼리는 뇌가 체중의 560분의 1 남짓인 데 비해, 인간의 뇌는 체중의 4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여느 생물의 가장 큰 차이는 몸에서 두뇌가 차지하는 비중과 많은 에너지 사용량이라고도 할 만도 한데요, 인간은 이토록 큰 두뇌로 무엇을 할까요?

온종일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수학 공식과 우주의 법칙에만 곰곰이 따지며 마음 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요. “친구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부모님은 내 말에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 “내가 그 일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나올까?” 등등. 생각은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것으로 풀리곤 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드라마나 영화, 소설이나 게임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이야기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겪으며 생기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큰 두뇌는 ‘관계를 계산하는 컴퓨터’와도 같아요. 인간처럼 크게 무리를 지어 사는 생명체는 혼자 있지 않지요. 개미는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로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뚜렷한 자기 생각과 개성을 지닌 채로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 사회를 이루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인간의 큰 두뇌는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예상하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끊임없이 가늠하곤 하지요.

“거울 뉴런, 마음을 읽는 거울”

우리는 상대의 기분과 생각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의 뇌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누군가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아야!” 하고 외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내가 얼굴 찌푸리며 비명을 지르는 상황을 바로 떠올립니다. 그때의 느낌도 같이 떠오르지요. 그러면서 “아, 지금 저 사람이 아프구나.”라고 판단하게 되지요. 이런 역할을 하는 두뇌 세포를 학자들은 ‘거울 뉴런(mirror neuron)’이라 불러요.

우리는 거울 뉴런 덕분에 누군가와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도 나와 같이 기쁨과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기에, 내 생각과 감정에 비추어 누군가가 나에게 해 주었으면 좋아할 만한 일을 상대방에게 하고, 싫어할 만한 짓은 되도록 안 하려 합니다. 관계를 좋게 꾸리고 싶다면 말이지요. 이렇듯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리켜 ‘마음이론(Theory of Mind:ToM)’이라고 해요.

“마음을 헤아리는 데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잘 읽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불쾌하고 싫는데, 상대가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짓궂은 농담을 계속한다면요? 오해와 불만이 쌓이고 다툼이 벌어지지 않겠지요. 세상의 많은 문제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생기곤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울 뉴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할까요?

“예쁜꼬마선충의 뇌와 인간의 두뇌”

예쁜꼬마선충은 길이 1mm 남짓의 벌레입니다. 예쁜꼬마선충의 두뇌는 300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가지고도 이 작은 벌레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머리를 건드리면 움츠리며 물러서지만, 계속해서 툭툭 치면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멀리 도망치지 않지요.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의 두뇌는 무려 1,000억 개의 신경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하는 양과 속도는 예쁜꼬마선충에 견주면 어마어마하겠지요? 게다가 예쁜꼬마선충은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기억하지만, 인간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익혀야 할지를 가리곤 합니다.

“애를 써야 하는 기억, 그냥 머리에 남는 기억”

인간의 기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를 써서 외워야만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두뇌에 새겨지는 것도 있어요. 과학 법칙이나 수학 공식은 이해하며 거듭해서 떠올려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전거 타기는 어때요? 한번 익히고 나면 한참 안 타다가 자전거를 몰아도 금방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말은 또 어떨까요? 우리말 문법을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문법을 갖추어 이야기하고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언어를 쓰는 가운데 문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헤아리는 능력은 어떻게 갖추게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세상의 사람이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슬픔, 분노, 놀라움, 두려움, 역겨움, 행복 등인데요, 이런 감정은 표정으로 바로 떠올라요. 얼굴을 한 번도 못본 시각장애인도 기쁠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며 웃음을 짓고, 슬플 때는 눈을 찡그리며 입꼬리가 내려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정신과 마음의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메타인지, 잘못된 생각과 느낌을 이겨내려면”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렇듯 타고난 감정들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생각을 나누면서 배우게 된 감정들도 많아요. 1990년대 미국의 어느 신문에서는 흑인의 얼굴을 더 까맣게 인쇄를 했어요. 이는 많은 비난을 받았고, 결국 언론사는 찍었던 신문을 모두 다시 걷어 들여야 했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만 해도 미국 사회에는 흑인은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편견이 있어서, 더 흑인스럽게 보이기 위해 더 까맣게 표현을 했던 탓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히듯, 이런 편견들도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 스며들게 되지요. 하지만 다행히 인간은 은연중에 받아들이게 되는 잘못된 믿음과 생각, 이에 대한 혐오 등의 감정을 깨닫고 고칠 수 있어요. 이른바 ‘메타인지(meta-cognition)’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인지란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들여다보듯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제대로 옳고 그름을 가렸다고 할 수 있을까?” 등등을 걱정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생활 곳곳에는 슬하계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피부색은 어떤지, 어디에 사는지 등등 사람들을 차별하며 갈라놓게 하는 잘못된 믿음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이러한 잘못들을 없애려면 우리 느낌과 감정, 생각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제대로 느끼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메타인지 능력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뇌는 어떻게 본능을 다스릴까?

-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이유”

문의 손잡이를 돌릴 때 우리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문이 열릴 테니까요. 하지만 덜컥 하며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제야 우리는 “왜 이렇지?” 하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어떻게 문이 열리는 거지?” 라고 물음을 던지며 천천히 손잡이를 살펴보며 작동 원리를 따져 보게도 되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비슷한데요, 평소 관계에 문제가 없고 서로 잘 대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살펴보지 않아요. 사이가 틀어지고 서먹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왜 저렇게 말하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며 따져 보게 되지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상이 별 탈 없이 굴러가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일 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믿음으로 누군가를 안 좋게 바라보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세상은 별다른 위기 없이 튼실하고 바람직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은 우리의 사고를 ‘빠른 생각(fast thinking)’과 ‘느린 생각(slow thinking)’으로 나눕니다. 생각하고 해법을 찾는 데는 노력과 에너지가 많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 상황을 ‘빠른 생각’에 따라 처리합니다. 문을 열 때 별생각 없이 손잡이를 돌리는 식으로, 몸에 배어 있는 습관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익숙한 방식으로 일이 굴러가지 않을 때야 우리는 ‘느린 생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과연 옳았을까?”, “꼭 이래야 했었나?” 하고 따지며 찬찬히 문제를 살펴보게 되지요. 우리 삶에 널리 퍼진 편견과 혐오, 폭력을 낳는 잘못된 믿음들도 ‘빠른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낯선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는 적잖은 품과 시간이 드는 탓입니다. 반면, “×× 나라 사람들은 원래 게을러.”, “○○ 출

신들은 거짓말을 잘해.”라는 편견에 기댈 때는 공들여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요. 사회에 널리 퍼진 익숙한 믿음을 따르는 데다가,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손가락질 받을 일도 적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 대한 세상의 편견과 혐오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유럽 사회에서의 유대인 혐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외부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고 사람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느린 생각’을 펼치기 시작하지요. “왜 우리는 그들을 싫어했을까?”, “혹시 그들이 아닌 우리에게 잘못이 있지는 않았을까?”, “내 삶과 사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인류가 오해와 증오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뿌리 깊은 오해와 앙심에 기대어 엄청난 미움과 증오를 쏟아내며 서로를 해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지요. 과학이 발전하며 인권에 대한 믿음도 자라나는 시대입니다. 이제 인류는 이러한 비극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빠른 생각’에 휩쓸리기를 멈추고 반성과 신중함이 담긴 ‘느린 생각’을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과학적 사고와 반증 가능성에 있습니다.

협오와 편견을 이기는 생각의 방법

- 과학적 사고와 반증 가능성

“우리만 최고라는 편견을 이겨내려면”

“나는 무척 똑똑해. 착한 데다가 성실하기까지 하지. 나에 비하면 남들은 한참 떨어지지.”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재수 없고 기분 나빠서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를 ‘우리’로 바꾸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무척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민족이지요. 우리는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지요.” 어때요? 이런 주장에는 되레 가슴이 뭉클할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잘난척할 때는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우리’의 뛰어난을 앞세울 때는 마음이 끌리곤 합니다. 인간 사회에 술한 갈등과 다툼은 이 때문에 벌어지곤 해요.

인류 문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전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무리와 다툼 때는 사회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하는 덕분입니다. 이때 ‘우리’는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며 올바른 사람들이고, 상대방은 옳지 못할 뿐더러 능력 면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되지요. ‘선한 우리들’이 ‘악의 무리’를 무찌른다고 여겨야 싸울 명분도, 의지도 굳건해질 테니까요. 우리가 틀렸고 상대가 옳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도 애써 고개를 돌려 버립니다. 이러면서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싶은 사실만 바라보려 하지요. 그러면서 안 좋은 고정관념과 편견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우리가 최고’라는 이른바 ‘내(內)집단 편견’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켜 왔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과학적 사고와 반증 가능성”

과학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믿는 의견을 무작정 따르지 않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논리가 있을 때만 ‘제대로 된 믿음’이라며 손을 들어 주지요. 과학적 사고는 오랜 편견과 잘못된 생각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무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방식의 핵심은 ‘다시 생각하기 (Thinking Again)’에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진짜 맞는지 의심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가지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이를 근거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계속 수정·보완(up-date)하는 것.” 과학적 사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갖 편견을 이겨내며 과학적으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내 생각과 주장이 틀렸음을 보일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를 ‘반증 가능성(Falsifiability)’이라고 하는데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라는 주장은 맞았는지 그릇되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되니까요. 반면 “신이 화가 나서 그놈들에게 벌을 내렸다.”는 주장은 옳고 그름을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논의를 많이 해도 발전은 없지요. 증명할 길이 없기에 제각각 자기 주장만 힘주어 거듭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할까?”

인류는 오랜 세월 진화하며 점차 공감 능력을 키우고 제대로 된 믿음을 키우며, ‘빠른 생각’을 누르고 ‘느린 생각’에 의지하면서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 사고가 큰 역할을 했어요. 과학적 사고는 실험 등으로 확인 가능할 만큼 믿을 만한 근거와 논리적인 생각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불끈거리는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며 질서있고 균형잡힌 세상을 만들 수 있었지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역시 이러한 과학적 사고에 근거해야만 편견과 혐오없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통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할까요? 마지막 챕터에서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15 horizontal dashed lines.

Chapter 3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 헌법적 공동체로 가꾸는 인류의 공존과 지속

9장. 기술과 문화 공진화-21세기 문명 이해

10장. 헌법적 공동체-공감을 넘어 공적 감정으로

11장. 소농사회와 대한민국 헌법정신-세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

12장. 21세기 평화를 위한 인재상-문화 학습자를 넘어 지식 작업자로

핵심 키워드 : #유전자_문화_공진화 #기술과_문화_공진화 #의지적_진화 #헌법적_공동체
#공감과_공적감정 #헌법적 애국심 #헌법적_인류 공동체 #성리학 #소농사회
#과잉 모방 #문화 학습자 #지식 작업자

“유전자-문화 공진화”

인류 진화에서 불의 사용은 무척 큰 변화를 낳았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먹게 되자 날고기를 먹을 때처럼 턱이 크고 강할 필요가 없었는데, 불에 익히면 고기가 연해지는 덕분입니다. 점차 씹는 데 필요한 근육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생겨난 빈자리에 두뇌가 더 크게 자리 잡았지요.

사냥 기술의 발전은 마음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큰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무리 속 사람들의 생각을 서로 읽고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겠지요. 그래서 다양하게 표정을 짓고, 이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기분과 느낌을 헤아리는 능력도 생겨났습니다. 인간 눈의 흰자위가 뚜렷하고 당황하거나 부끄러울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눈의 흰자위 덕분에 우리는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뿐 아니라, 붉게 달아오르는 얼굴을 보며 감정 상태를 짚어 낼 수 있지요. 이렇듯 불의 발명, 집단 사냥 같은 문화의 발전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만드는 유전자의 변화를 이끕니다. 반면 바뀐 유전자에 걸맞게 인류는 다시 여기에 걸맞게 문화를 바꾸어 왔는데, 이를 ‘유전자-문화 공진화’라고 합니다.

“기술과 문화 공진화”

하지만 진화의 속도는 언제나 문화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진화는 수만 년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지지만, 문화는 빠르게 발전하며 나아가니까요. 전기가 널리 퍼지고, 자동차가 등장했으며, 스마트폰이 당연한 세상이 되고 인공지능도 곳곳에서 자리 잡아도, 인류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무리 지어 사냥 다니던 6만 년 전 수렵·채집 시대 상태 그대로입니다.

수렵·채집 시대 사람이 현대 사회를 산다고 해보세요.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모든 것이 부족한 초원에서 살 때는 달고 기름진 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풍족한 현대 사회에서 이런 먹거리는 몸에 해로운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달달하고 짭짤하며 기

름진 맛에 끌리곤 합니다. 수렵·채집 시대 인류의 몸을 여전히 가진 탓인데요, 우리가 애써 입맛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건강은 무너지겠지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우리 시대 발명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집단을 이루고 살던 수렵·채집 시대 인류의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접하고 나누는 세상에서 산다면 과연 문제가 안 생길까요? 웹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술한 무리 짓기와 인신공격, 따돌림 등은 이래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 발전에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삶과 문화를 가꾸어 가야 합니다. ‘기술과 문화 공진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지적 진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다행히 인류는 흘러가는 대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나아가야 할 방향대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의지적 진화(Voluntary evolution)’라고 하는데, 생명공학과 나노공학은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바꾸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류는 기술과 문화 발전에 맞추어 우리가 지닌 수렵·채집 시대 인류의 욕망과 바람을 끊임없이 길들이며 바람직한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할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뺏속까지 사회적이다.”

인간의 두뇌는 원래 수학 문제를 풀거나 물리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겨난 기관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과 과학 이론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여기에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 마음을 읽고 심정을 짐작하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대화의 상당 부분은 다른 이들과 얽힌 일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평가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인간의 큰 두뇌가 무리 안에서 관계를 잘 짓기 위해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대목이지요. 이렇듯 인간은 뺏속까지 사회적입니다.

“공감에서 공적 감정으로”

관계를 잘 맺는 데는 공감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내 편이 있으면 든든하고 가슴 뿌듯한데요, 누군가와 함께하면 서로 의지가 되며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공감(empathy)’이라 하지요.

가까운 사이끼리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아주 친한 친구 사이를 떠올려 보세요. 내 편이 어떤 잘못을 했건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무작정 우리 편’이라며 감싸려 들 것입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데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럿이서 함께 사는 세상에는 규칙과 질서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모든 것을 원칙과 논리로 해결하려 할 때는 어떨까요? 사소한 잘못임에도,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규칙을 어겼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면요? 사람들이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말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우리가 품위 있고 인간미 넘치는 사회를 가꾸기 위해서는 ‘공적 감정(public emotion)’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녀에 따르면 “감정은 이성에 기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지 모르고 물가로 기어가는 어린아이를 본다면 어떨까요?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퍼뜩 들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화가 나겠지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옳지 못하다’라며 가슴이 먼저 우리에게 외치는 셈입니다. 반대로 희생을 무릅쓰고 아이를 구한다면 진심으로 아이를 구한 사람에게 손뼉을 치겠지요.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적 감정이란 ‘옳고 그름을 가려 옳고 제대로 된 생각과 행동에만 공감하며 그릇되었을 때는 분노하며 이를 고쳐야겠다고 마음먹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헌법적 애국심을 넘어 헌법적 인류 공동체로”

공적 감정은 배려심과 공동체에 헌신하는 마음에 뿌리가 됩니다. 이기심을 누르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게 하는 공적 감정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는 이 물음에 답을 줍니다. 제대로 된 국가는 헌법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지요. 현대 사회의 헌법은 사람은 전부 존엄하며 평등함을 모두를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헌법을 제대로 따른다면 공적 감정에 따라 질서가 잡히고 조화로운 사회를 꾸릴 수 있어요. ‘헌법적 애국심’이란 이렇듯 헌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살며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려는 마음 자세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헌법을 갖춘 나라들끼리도 서로 부딪히며 다투는 모습이 드물지 않는데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간의 충돌이 점점 잦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애국심을 넘어 인류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며 평화를 가꾸는 ‘헌법적 인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루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헌법적 인류 공동체의 롤모델”

21세기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 평화를 이룬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6·25 전쟁 직후까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나라가, 70여 년 만에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회원국까지 성장한 경우는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엄혹한 독재의 세월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일궈 내기도 했는데, 이쯤 되면 왜 전 세계가 흔히 'K-'로 표시하는 우리 문화에 열광하는지를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은 서구가 먼저 이룬 경제와 민주주의 모델을 잘 따라온 추격자일 뿐, 세계 문명을 이끌 선도자는 아니라고 깎아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일군 정직과 근면함을 강조하는 도덕과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정신은 서구의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발전한 서양 세계를 모방하며 따라 했다기 보다는 우리 정신문화에 담긴 가치들이 여러 나라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가운데 비로소 피어 났다고 하겠지요.

“성리학과 소농사회”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일군 우리의 전통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600년이 넘도록 조선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끈 성리학의 정신이 있습니다. 성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저마다 올곧고 바른 사람이 될 능력을 타고납니다. 즉, 누구나 노력하면 '성인군자(聖人君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성리학에 따르면, 꾸준히 마음을 갈고 닦아 인자한 성품과 지혜를 갖춘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릴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에서는 임금에서 어느 평민에 이르기까지, 틈만 나면 공부를 하며 마음을 갈고 닦으려 했는데, 이러한 특징은 과거 제도를 통해 뚜렷하게 나타났지요. 서양에서는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야만 지배층이 될 수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열심히 인격을 닦고 실력을 쌓아야 지도층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조선이 꿈꾸었던 모습이었을 뿐 실제로는 많은 잘못과 뼈돌어진 모습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모두가 평등하며 열심히 노력하여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라는 믿음만큼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생활의 터전을 갖춘 소농(小農)들이 중심이 된 경제 제도 또한 지금의 성장과 민주화를 일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전통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소농사회는 우리와 중국,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는 공통된 특징이기도 한데,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살 만해진 농부들은 더 부자가 되어 사치를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공부를 통해 마음을 갈고 닦으며 훌륭한 인격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공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잖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수많은 사람이 과거 공부에 매달리며 상승하려는 욕망은 결국 지금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일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인류 평화에 대한 해답은 우리 헌법정신 안에 있다”

게다가 우리 헌법 안에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 가치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헌법은 어느 앞서가는 나라들의 헌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 공존과 세계 평화를 꿈꾸는 전통이 없었다면, 다른 나라의 법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신을 잘 나타내는 헌법 전문(前文)을 찬찬히, 공들여 읽어보세요. 자유와 민주,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에 면면히 흘렀던, 인류가 좇아야 할 올바른 가치들을 튼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요.

21세기 평화를 위한 인재상

- 문화 학습자를 넘어 지식 작업자로

“인간은 왜 과잉 모방을 할까?”

어느 심리학자가 풍선 인형을 세워 놓고 어른이 풍선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 모습을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똑같이 인형을 때리고 짓밟았습니다. 그런다고 생기는 것도 없었을 뿐더러 칭찬을 듣지도 않았음에도 어른과 똑같이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네요.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남들이 하기에 따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등 유행을 생각해 보세요. 꼭 남들처럼 차림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도, 남들처럼 하려고 은연중에 애를 쓰게 되지 않던가요?

남들과 비슷하게 처신하려는 노력은 때때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청소년들은 선배나 친구들의 잘못된 행동을 따라 하곤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한 위험한 곳에 굳이 가거나 옳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변을 따라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따돌리기도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과잉 모방’을 하는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우리의 본능 속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도 되는 일을 남들이 하기에 자신도 함으로써 ‘나도 같은 부류’임을 은근히 드러내려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문화 학습자’로서의 인간 본성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별생각 없이 사회의 일부가 되기 위해 남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지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이런 문화 학습의 결과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화 학습자를 넘어 지식 작업자로”

과학 문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옳고 그름을 가려 주는 가치관 역시 가파른 속도로 바뀌고 있지요. 수백 년 전, 입말 그대로 생각을 종이에 옮겨 널리 퍼트릴 수 있게 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인류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데, 책을 쉽게 구하게 되자 글을 읽는 사람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갖춘 이들도 많이 늘어났을 뿐더러, 그럴수록 과학기술도 자라났습니다. 지혜가 자랄수록 모두가 평등하다는 믿음도 퍼졌고요.

지금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또한 인류 문명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동시에, 같은 시간에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 생각만, 우리 사회의 믿음만 옳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언제든 함께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빠른 변화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기며 해결 노력도 필요로 하지요. 인류가 단순히 문화 학습자에 머문다면, 이런 현실에서 제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화 학습자를 넘어 ‘지식 작업자(knowledge Worker)’가 되어야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류 공동체를 이루려면”

지식 작업자는 “끊임없는 학습과 혁신을 통해 자신을 성장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공감하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다가갈 때 제대로 학습하며 발전을 이루겠지요.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은 변하며 발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사냥과 채집을 위한 작은 무리에서 출발한 인류는, 마을과 국가를 이루는 단계를 지나, 이제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인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풍요롭게 지내며 공존과 지속을 이룰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식 작업자로서 우리는 이 물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고민해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 성찰하는 자의식, 공적 감정

- 평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즐겁고 여유 있을 때는 대부분 사람은 성격이 좋아 보입니다. 딱히 화를 낼 이유로, 누구를 공격할 이유도 없는 까닭이지요. 반면, 춥고 배고프며 힘든 상황에서는 날카롭게 날이 서며 서로 부딪히며 다투기 쉽습니다. 어느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라 할 만할까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훌륭한 인성은 상황이 어렵고 안 좋을 때 빛이 납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이 차분하고 평온하면서도 남들에게도 친절하며 항상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보태는 사람,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류는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큰 전쟁 없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었던 시절은 역사상 흔치 않지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 70년 넘게 전란이 없는 평온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여유가 있는 나라들도 많아졌는데요, 과연 지금같이 평화와 번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평화는 당연하지 않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어지는 것을 당연한 듯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다툼들이 이어지고, 큰 나라들끼리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지요. 잦은 다툼은 결국 큰 전쟁을 낳곤 합니다. 풍요롭고 평화로울 때 착하고 따뜻해 보였던 사람도, 갈등을 빚을 때는 냉정하고 비열한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인류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사람들은 더는 큰 전쟁은 없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경제도 날로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좋은 시대(bell epoche)'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평화가 자리 잡아 예술과 문화도 꽃피웠으며 나라 사이의 협력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가 합리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믿음이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평화는 쉽게 무너졌고, 과학 기술은 대량 학살을 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거듭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비극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과학적 사고로 성찰하는 지식 작업자”

우리가 평화에 대해 애써 고민하며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산업혁

명과 프랑스대혁명이라는, 폭발적인 산업 성장을 이끌고 민주화를 이끈 두 개의 큰 사건을 겪으며 크게 발전해 왔지요. 하지만 진화는 문명의 발달 속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6만 년 전 초원에서 작게 무리지어 살던 호모 사피엔스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우리와 다른 집단을 밀쳐 내고 공격하려 하고, 무리 안에서도 자신이 밀려날까 늘 전전긍긍하지요. 뛰어난 상대를 질투하고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면서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드러내려 합니다. 평화에 이르는 진정한 길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환상 없이 '양복 입은 구석기인', '털 없는 원숭이'일 뿐인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내 안의 짐승을 길들인다는 자세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다스리며 사랑과 배려를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진화론의 눈으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과학적 사고로 성찰하는 지식 작업자"가 되기 위한 여러 모습을 공들여 살펴보았습니다.

“헌법적 인류 공동체를 이끄는 새로운 평화교육”

“우리 인간은 석기 시대의 마음을 지닌 채, 중세 시대의 제도가 여전히 작동하는 사회에서 신과 같은 기술을 갖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의 말인데요, 6만 년 전, 성찰하는 자의식을 갖추게 된 인류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만 년 전 농사를 지으며 문명을 일궈냈습니다. 5천 년 전 국가를 이루며 전쟁과 경쟁을 통해 성장한 인류는, 마침내 21세기 정보기술 혁명을 거치며 '인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로봇공학 등의 '신과 같은 기술'과 산업과 경제를 끝없이 키워 가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세상이 하나로 이어진 초연결사회로 이끌고 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석기 시대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 무리는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표지'를 통해 하나로 뭉치곤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부족을 나타내는 상징, 종교, 국적 등 이런 표지의 역할을 해 왔는데요, 인권과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현대 사회에서는 헌법이 표지였습니다. 법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믿음 안에서 평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미워하며 옳고 바른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느끼게 하는 '공적 공감', 그리고 헌법에 충실하게 자유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적 애국심은 근대 사회를 이끄는 힘이었습니다. 발전하는 인간 무리는 이제 국가 간의 경쟁과 다툼을 넘어, 인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공존과 지속을 이끄는 '헌법적 인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는 화가 폴 고갱(Paul Gauguin)의 그림 제목이기도 합니다. 고갱의 그림이 주는 감동과 함께, 이제 평화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메모



Handwriting practice area on page 140, featuring 12 horizontal dashed green lines for writing.

Handwriting practice area on page 141, featuring 12 horizontal dashed green lines for writing.

공존을 위한 공감교육

교재 기획

한마음재단
풀무원재단

편집

안광복(서울 중등고등학교 철학 교사)

집필

권혜정(서울 중평초등학교 교사)
손진희(송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코칭상담학과 교수)
이선영(서울 신정초등학교 교사)
이지혜(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자문·감수

안주현(서울 중등고등학교 과학 교사)
이영수(서울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표지 및 내지 일러스트

조진호(과학 대중교양서 작가/前 민족사관고등학교 생물 교사)

편집·집필 지원

심현준(풀무원재단 책임/前 한마음재단 연구기획 담당)

발행처

한마음재단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처빌 1123호
www.hanmamf.org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본 교재는 발행처인 한마음재단의 지원으로 집필, 발행되었으며, 교재의 저작권은 발행처에 있습니다.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거쳐야 하고,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은 생략할 수 있으나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사용 조건 : CC-BY-SA / 저작자 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